

이화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회보 2012년 가을 제128호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이화동창

2012년 겨울호 제129호



- 02 · 겨울의 시 조용한 학창 | 김영교
03 · 총동창회장 인사말 어려움을 기쁨으로 해결하는 한 해 되길 | 조종남
04 · 2012 '이화인의 밤' 1천 여 동창들 우정과 즐거움으로 한 해 마무리
08 · 아름다운 이화인상 제정 이렇게 이루어졌다 | 윤순희
10 ·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 동창들 격려와 축하에 감사 | 최재명
11 · 축하 인터뷰 윤후정 명예총장 '목총법률상' 수상
17 · 축하합니다 이영자 김태련 이배용 유은옥 김은실
18 · 기획 시리즈 이영희 교수가 추천하는 2013 이화 유망 작가 | 차정인
20 · 기획 시리즈 김선주가 만난 이화 예술인–서양화가 황주리
24 · 이화 사위석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많은 남편 | 강정희
26 ·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필리핀 | 최금숙
28 · 총동창회 문화특강 유흥준과 함께하는 백제문화 탐방기 | 유정희
30 · 기획 앙케이트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들의 새해맞이
34 ·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워싱턴에서 개최할 2013 총회 기대
38 · 부산지회 '송년의 밤'
39 · 이화문인 산문 릴레이 새가 되었네 | 허승실
42 · 총동창회 소식
45 · 대학소식
48 · 과·학부 소식
52 · 국내·해외지회 소식
60 · 모교 소식
63 · 동창소식
66 ·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67 · 2012 연회비 납부자



편집위원

조종남(의학75) | 박유나(도예81) | 조경원(교육75) | 박경임(식영73) | 김효신(의학84)
유영선(신방75) | 김선주(불문65) | 백수경(신방79) | 김경은(영문79)

2012년 겨울호 제129호 비매품 | 발행 · 2013년 01월 10일 | 발행인 · 조종남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 02-3277-3386 · 3387

E-mail : ewhaalum@ewha.ac.kr

편집 · 도서출판 계간문예(02-3675-5633) | 디자인 · 박래후편집공방 www.raehoo.com 02-742-9991

인쇄 · 신아인쇄

© 2013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조용한 합창

김영교 / 영문 63, 시인 LA 거주

날이면 날마다
생명을 길어 올리는 나무들
꿈 푸른 가지마다 기웃대는 바람
이화 숲을 채우는 새들의 노래
햇빛 눈부신 아침을 약속한다

비바람의 어둠던 밤 멀리
세계로, 하나로, 내일로 치닫는 너와 나의 기도
부동켜안고 비비대던 배움의 목마름
하늘 저 멀리 날아오른다

소모되지 않는 밀알정신
변질되지 않는 이화정신
손잡고 내딛는 발걸음 마다
꿈푸른 숲이 내뿜는 역사의 입김
힘차고 힘차다

사랑과 화해의 앞바퀴
믿음과 소망의 뒷바퀴
섬김과 배풀의 헌신을 다지며
역사의 대로를 달린다
우렁차게 응비하는 진선미의 힘, 그 힘

이화 숲의 크고 작은 동창 나무들이여
이제는 당기고 끌어주는 소망의 시간
조용히
옥합의 합창을 올려드릴 때임을
지금이 바로 그 때임을

어려움을 기쁨으로 해결하는 한 해 되길

회장 조종남 | 의학 75

사랑하는 19만 동창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아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성 대통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메르켈이나 대처와 같이 서양의 여성이 당당한 것이 부러웠고 동양권에서 그러한 여성 리더가 없다는 것이 아쉬웠는데 지난 선거를 통하여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새해에는 동창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활기차며 맥내 화평이 깃드는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기 2년차를 맞은 작년은 정말 바쁘게 지낸 날들이었습니다. 5월에는 장엄한 메시아 발례공연을 비롯하여 동창국회의원 축하연, 대바자,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창립 126주년 기념 친양예배, 동창의 날 행사등의 준비와 진행에 동분서주하며 온 힘을 쏟았고 동창님들의 경조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총동창회기도 제작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을 통해서 스크랜튼 선생님으로부터 김활란, 김옥길 선생님으로 이어진 이화 사랑을 구현한 이화재단과 함께 하는 북미주 동창님들의 정성어린 협조와 지극한 이화 사랑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총동창회에서는 지회기를 제작하여 북미주지회연합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2012년도의 큰 행사의 하나인 ‘이화인의 봄’에서 ‘아름다운 이화인’ 수상자로 정신장애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일을 30여 년간 겸손하게 봉사하고 있는 최재명 동창을 선정한 일이 마음에 남습니다. 또한 12월 마지막 행사였던 ‘이화가족 성탄예배’를 보며 우리 이화의 미래가 밝은 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 또 재작년을 돌아보면 동창회 행사마다 즐겁고 보람된 일들이었고, 부족한 저에게 분에 넘치게 힘을 실어 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대학원생의 정회원 입회와 총동창회 살림의 규모 있는 계획과 실천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햇빛은 달콤하고 비는 상쾌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눈은 기분을 들뜨게 만든다.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라는 존 러스킨의 말처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어려움을 기쁨으로 해결하는 한 해가 되기를 동창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고 싶습니다.



2012 '이화인의 밤' 행사

1천 여 동창 우정과 즐거움으로 한 해 마무리

최재명 동창에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

2012년 11월 26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총동창회가 주관한 2012년도 '이화인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성큼 다가온 겨울 날씨에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다채롭게 펼쳐진 이번 '이화인의 밤'은 각 대학, 학부, 과, 대학원 동창 1천여 명이 어우러져 우정과

덕담을 건네며 한 해를 감사히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조종남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생 중 가장 아름다운 청춘시절을 이화 동산에서 함께 보낸 동창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추억을 나누는 이런 만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라면서 '오늘의 동창회가 있기까지 사랑으로 헌신한 장의순, 주영희, 윤순희, 김순영 전 회장에게



에게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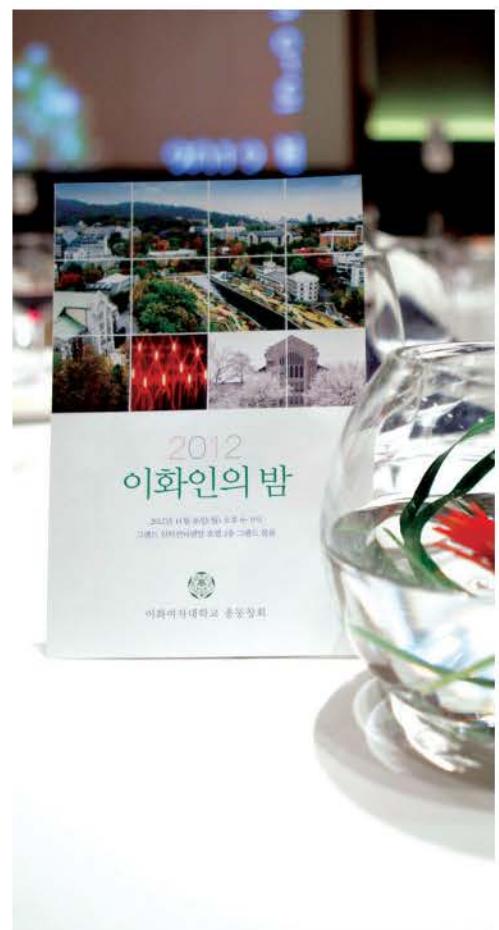
또한 모교에서 참석한 윤후정 명예총장, 정의숙 전 이사장, 장명수 이사장, 김선옥 총장, 장상전 총장, 이배용 전 총장, 신인령 전 총장 등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조종남 회장은 동창들이 모금한 모교발전기금 1억 원을 김선옥 총장께 전달하였다. 김선옥 총장은 모교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운 '이화'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마곡 의료지구 건설로 앞으로 이화가 그곳 의료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날개를 달고 비상을 준비하게 될 것'을 동창들께 알렸다.

참석 동창들 모두 '최신의 의료장비와 아름다운 건물을 갖춘 새로운 이화 의료원이 건립되어 전세

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박수를 보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제 8회 '아름다운 이화인' 시상식이었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오랫동안 섬김과 나눔의 이화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이화 동창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으로 수상자로 선정된 최재명(사회사업 66) 경산복지재단 이사장은 40여 년을 만성 정신 장애 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 헌신해 온 동창이다. 사회사업과를 졸업한 1966년부터 아동복지, 가정복지사업 등의 사회사업 현장에서 정신적 물질적 교육을 지원하며 사회사업가로 일을 하기 시작한 최 동창은 1981년, 부친 고



노숙 최병홍 옹의 유지를 이어받아 경산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만성 정신장애인들의 요양시설을 운영하였다. ‘사랑밭 재활원’이라 이름한 정신요양시설에는 만성 정신장애인들이 많게는 270여명이 입주하여 함께 살고 있으며 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음에도 퇴원을 원치 않는 가족을 본 최동창은 현재 우리나라 최초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귀 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경산복지재단은 만성정신장애인들도 이웃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그들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산복지재단은 소외받고 힘없는 노인들을 위한 ‘다정마을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함께 미래복지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애전 장학사업’도 하고 있다.

‘이화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1천 여 동창들은 이 날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만찬과 재즈 음악가 한상원 밴드의 공연인 ‘작은 음악회’를 홍겹게 즐겼다. 총동창회는 이 날 정성껏 마련한 풍성한 개인 별 선물과 총 5백여 점에 달한 행운권 추첨 선물을 동창들에게 전달하였고 참석 동창들은 내년의 만남을 기대하며 2012년의 송년회를 마쳤다.

행운선물 기증 목록

| | | |
|----|---------------------------------|--|
| 1 | 정의숙 전 이사장 | 30만원 백화점 상품권 |
| 2 | 윤후정 명예총장 | 순금 행운의 열쇠 |
| 3 | 장명수 이사장 | 50만원 백화점 상품권 |
| 4 | 김선옥 총장 | 인덕션 레인지 1대 |
| 5 | 조종남 총동창회장 | LG 트롬 드럼 세탁기 1대 |
| 6 | 서현숙 의무부총장 | 목동병원 패트검진권 1매 |
| 7 | 윤순희 총동창회 고문 | 삼성 지펠 냉장고 1대 |
| 8 |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 | LG 노트북 1대 |
| 9 | 박유나 총동창회 부회장 | 와인 110병 |
| 10 | 조경원 총동창회 부회장 |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
| 11 | 유화숙 총동창회 감사 |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
| 12 | 손중수 총동창회 감사 |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1대 |
| 13 | 김효신 총동창회 총무 | 전동칫솔세트 5점 |
| 14 | 박경임 총동창회 문화부장 |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책 30권 |
| 15 | 김선애 총동창회 재정부장 |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2매 |
| 16 | 계명선 총동창회 음악부장 | 30만원 금강 상품권 1매 |
| 17 | 유영선 총동창회 홍보부장 | 제주도 왕복 항공권 2매 |
| 18 | 위성숙 총동창회 지역부장 | 고단위 단백질 종합 영양제 세트 5점 |
| 19 | 지연숙 총동창회 선교부장 | 이능호 생활자기 '싸잇함' 2점 |
| 20 | 김혜원 인문대학 동창회장 | 스카프 20점 |
| 21 | 이양준 사회대학 동창회장 | 백자 다기세트 1점 |
| 22 | 방명혜 음악대학 동창회장 |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
| 23 | 장혜린 체육대학 동창회장 |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1점 |
| 24 | 김명주 사범대학 동창회장 |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5매 |
| 25 | 박관순 법과대학 동창회장 | 도서출판 한길사 '로마인 이야기' 15권 세트 1점, 피크닉 바구니 1점 |
| 26 | 임혜린 경영대학 동창회장 |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
| 27 | 김진향 간호대학 동창회장 |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3매 |
| 28 | 정준순 악학대학 동창회장 | 침구살균진공청소기 1점 |
| 29 | 양수화 교육대학원 동창회장 | 다목적 가방 10점 |
| 30 | 최명은 정책과학대학원 동창회장 | 삼성 40인치 3D 스마트 TV LED 1대 |
| 31 | 독일 오스트리아 저희 | 스와로브스키 제품 4점 |
| 32 | 이순애 독일 오스트리아 저희장 | 스와로브스키 목걸이 1점 |
| 33 | 한경희 불문과 동창 | 한경희 생활과학제품 4점 |
| 34 | 안윤정 불문과 동창 | 앙스모드 의류 1점 |
| 35 | 백수경 신방과 동창 | 서울백병원 건강검진권 2매 |
| 36 | 안혜영 조소과 동창 | 안혜영 의류 1점 |
| 37 | 도예과 동창(이혜정 서우미 민세원 이지은 주세정 김지혜) | 도예작품 15점 |
| 38 | 손성혜 교육과 동창 | 손성혜 한복상품권 1매 |
| 39 | 황인경 과학교육과 동창 | 설화수 화장품 세트 1점 |
| 40 | 주안숙 국제사무학과 동창 | 주인숙 다이아몬드 브로치 1점 |
| 41 | 오헤숙 의학과 동창 | 오헤열의 '웃음희망 행복나눔' 책 20권 |
| 42 | 이영숙 악학과 동창 | 코모도호텔 2인 1박 숙박권 2매 |
| 43 | 홍라희 ALPS 7기 동창 | 삼성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1대 |
| 44 | 김명주 부띠끄 | 김명주 의류 상품권 1매 |
| 45 | 롯데백화점 | 10만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매 |
| 46 |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 목동병원 건강검진권 3매 |
| 47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 순면암치마 조끼세트 21점 |
| 48 | 인터컨티넨탈호텔 | 인터콘티넨탈(코엑스) 2인 뷔페식사권 3매 |
| 49 | 주)동화약품 | 잇치페이스트 1,200점 |
| 50 | 주)샘표식품 | 요리에센스 연두, 맛간장(조림볶음) 각 1,000점 |
| 51 | 한국도자기 | 캐롤라인 홈세트 2점 |
| 52 | 아우름 쥬얼리 | 진주 목걸이 1점 |
| 53 | 총동창회 | 수첩, 달력, 망사기방, 파스 각 1,000점 |

‘아름다운 이화인’상 제정, 이렇게 이루어졌다

2012년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한 제8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은 윤순희(교육 65) 고문께서 총동창회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5년에 제정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아름답게 꽂피워가는 ‘아름다운 이화인’ 상 제정에 담긴 깊은 뜻을 이 상을 제정한 윤순희 고문께 들어본다.

(편집자주)



‘아름다운 이화인’ 상을 제정하게 된 취지와 계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2003년 3월 제 14대 총동창회장에 선출되었을 때 두렵고 멀리는 마음이었지만 섬기는 자세로 화합을 제일 우선 순위로 두고 동창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한 세기를 이어온 선배들의 헌신에 감동하면서 동창회 업무를 배우고 조직을 점검하고 다지는 일에 충실하였고 이듬해 5월 모교 창립기념식에서 ‘자랑스런 이화인’ 시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 이름을 드높인 참으로 자랑스런 졸업생들이었습니다.

상의 이름도 무척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이화인’ 상으로 이름하게 된 것입니까?

겉으로 드러나 누구나 알아보는 모습이 아니라 절망에서 희망을 꿈꾸게 하고 어두움 속에서 빛을 찾아 주는 정성과 손길이 참 아름다움이란 의미에서 ‘아름다운 이화인’으로 정했습니다.

시상도 수많은 이화인이 모인 자리에서 격려하며 축하받고 ‘이화인의 밤’을 더욱 빛내기 위해 연말에 열리는 ‘이화인의 밤’에서 하기로 정했습니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에 얹힌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 9월 정기 임원회에서 아름다운 이화인상 제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준

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2005년 2월까지 규정을 제정하고 7월에 추천 의뢰, 8월 접수 마감, 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3명의 후보자들을 골라 이에 대한 현장실사를 나갈 때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 실사를 나가보니 열악한 현장 여건 속에서 수십 년씩 헌신해온 후보자의 노고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실사라는 절차가 오히려 부끄러울 만큼 참 아름다운 이화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3번째 실사를 한 우리는 부산 매실보육원을 나오면서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선정 위원 모두가 1회 수상자로 박진숙(심리 58) 동창을 선정하였던 일은 지금도 가슴 뭉클합니다.

또한 파주, 부산, 광주 등 전국을 실사 다니면서 총동창회 임원들 간에 서로 배려하며 친목을 더욱 다질 수 있어서 이 일을 통해 동창회 일을 한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었던 것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화인’ 수상자 중 기억에 남는 동창은 누구입니까?

제 1회 부산 매실보육원의 박진숙 동창입니다. 어머니가 6.25 때 전쟁고아를 돌보기 위해 설립한 보육원에서 어머니를 돋기 위한 보모로 시작하여 40년간 봉사하신 분입니다.

고아들의 보육, 교육, 취업의 전 과정에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길러냈고 보육원에 들어오는 후원금을 모았다가 원생들의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줌으로써 19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원아들에게 독립자금으로 통장을 손에 쥐어주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이화인의 지혜였습니다.

매실보육원은 박동창의 ‘아름다운 이화인’ 수상자 선정이 인연이 되어 부산의 기업체 대우버스에서 매년 1200만 원씩 지금까지도 후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이 1회성에 끝나지 않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의 발전을 위해 조언해 주십시오.

이상이 본이 되어 더 많은 기업의 ‘사회 기여’라는 아름다운 시작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아름다운 이화인’ 수상자 모든 분들의 헌신과 봉사로 이어진 생애가 더 빛나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화인들이 섬김과 나눔의 이화정신을 우리 사회에 널리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8년 전 500만 원으로 상금을 시작했지만 동창회의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상금이 더 많아지기를 또한 함께 기대합니다.

정신질환자들과 함께 한 삶에 보내준 동창들 격려와 축하 박수에 감사

최재명 / 사회복지 66 경산복지재단 이사장

11월 26일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에서 개최하는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식과 송년회가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의 2층 그랜드볼룸에서 오후 6시에 있었습니다.

이 날 상을 받는 그 순간과 곧 이어 3분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는 그 순간이 무한히 길게 느껴지는 상황(situation)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맨 앞 식탁에는 역대 이사장님들과 총장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상을 수상하고 소감을 말하면서 저는 1천 여 동창들께 어떻게 하면 정신질환자(장애인)들에게 대해 더 이해하기 쉽게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그들에 대한 얘기를 잘 해야 한다는 초조감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으로 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속으로 수 없이 대답을 하며 수상의 감사 인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회복지대학원의 정순돌 원장님 이하 사회사업학과 교수님들의 축하와

저를 아는 선후배들의 축하로 저는 잠시 바빴습니다. '아름다운 이화인'상을 제정한 윤순희 전 총동창회장님도 상을 제정한 의미와 꼭 맞다하며 저의 곁으로 오셔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경산복지재단의 직원들과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어야 할 때는 노선숙 사범대학장님이 자청하시어 사진을 찍어주고 이메일로 보내주기로 하시며 가셨습니다. 60학번 교육과의 손성혜 동창님은 그의 고전의상실의 한복 한 벌을 매해 아름다운 이화인에게 주듯이 제게도 선물로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62학번 신인령 전 총장님은 나와 같은 학번이어서 당시의 학창시절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리를 떠나기 전에 김선옥 총장께서는 나의 늙으신 어머니가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며 인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 하셨습니다. 모교의 총동창회가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이화인'이라 명명하여 선택하여 상을 주어서 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화여자대학의 총동창회에 대한 크나큰 소속감과 말없이도 선후배들 간의 오가는 따듯한 미소가 그지없이 좋았습니다.

모교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가까이서 함께 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호주제 위헌’ 이끈 양성 평등 ‘가족법 개정’의 수호자

대한민국 여성들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60여 년간 여성의 올바른 입지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여성 스스로 지위 향상을 위해 일어설 줄 아는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헌신해온 윤후정 명예총장이 있다. 2012년 11월 19일 윤 명예총장은 법여성학 분야의 최고 공로자요, 대한민국법률 체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공로로 ‘목촌법률상’을 수상하였다. ‘이화동창’의 축하 인터뷰를 위해 구립 27일 조종남 총동창회장과 만난 한국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인 윤 명예총장에게 우리들의 지난날과 앞날의 희망을 들어본다.

진행 및 정리 유영선(신방75, 총동창회 홍보부장) 김경은(영문79, 이화동창편집위원회)



동창회장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로서 평생을 양성평등을 위해 애쓰신 명예총장님을 ‘이화동창’에 모실 수 있게 되어 감사하며 ‘목촌법률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교를 빛내고 동창과 재학생들에게 귀감이 된 수상이라서 더욱 기쁩니다. 이번 인터뷰가 19만 이화동창 모두에게 자

긍심을 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총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오히려 내가 더 고맙습니다.

동창회장 그동안 많은 상을 받으셨겠지만 이번 ‘목촌법률상’ 수상 소식을 들으셨을 때 소감과 느낌은 어떠하셨습니까?



명예총장 뜻밖이고 의외였습니다. 총장직을 맡으면서부터는 학문 연구나, 저술에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 여러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그 어느 것에도 충실히 못하다고 생각했고, 21C는 굉장히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화대학이 변화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학술 활동을 거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소식을 듣고 많이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주최측에서 “학술 발표 뿐 아니라 전공 분야인 ‘헌법’을 위해 직접 실천한 분이기에 드리는 상”이라 해서 기쁘게 받았습니다.

동창회장 명예총장님께서는 늘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라는 타이틀이 따라 다니는데 6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과 ‘여성’이 변화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심사숙고할 바는 무엇입니까?

명예총장 ‘최초’라는 단어는 총장 재임 시던 1994년 3월 ‘이화문화 새창조’라는 제목으로 학기 초에 채플을 인도했을 때 사용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공통언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영원한 진리, 사랑, 진선미, 빛과 소금, 사명, 헌신, 나눔, 새창조’ 등이 긍정적인 공통언어이고 ‘거짓, 사용, 비리, 분열, 아첨, 탈취’ 같은 비유화적인 언어라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학교는 많은 것에 대해 최초를 낳은 학교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여의사, 최초의 여학자, 여박사, 초대 여회장이 우리 학교 역사에서 탄생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였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니 나를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녔던 1950년대에는 법학을 전공하는 여학생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런 여성은 ‘시집 다갔다’고 우려했던 시기였습니다. 더구나 법학 중에서도 헌법을 전공하는 여교수는 당시 외국에서도 없었습니다. 헌법학은 국가의 기본 틀을 정하고, 국민과 국가와의 권리, 의무 관계 및 국가철학, 정치사상들에 익숙해야 다룰 수 있는 학문입니다. 때문에 여성들이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에서는 민법을 전공했습니다. 57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당시 지도교수였던 이영석 교수(후일 대법원 판사)께서 제게 59년부터 헌법학 강의를 맡으라고 하셔서 당황했습니다. 밤새도록 공부를 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강의를 맡고 보니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62년에 미국 유학을 가서 다시 정치사상사와 헌법학을 공부했습니다. 헌법학은 시야를 넓게 하고 안목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법사에 도움되는 일을 했다고 한다

면 60년 대부터 여성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던 일입니다. 당시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며 역할이나 기능, 지위를 다르게 취급하면서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고 말하며 받아들일 때, 저는 나름대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 차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여성과 남성의 기질, 본성, 능력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리적이나 체력 면에서는 다르겠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나 관념 속에서 남녀의 차이를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고 이를 해결해보고 싶었습니다. 제도나 관념의 차이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므로 변경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을 비롯하여 제도와 법규, 생활 현상을 고치면 되겠다고 말입니다.

74년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여성지도자의 모임'을 시작으로 여성문제 의식화를 강의하였습니다. 당시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집중하던 때입니다. 그러나 집안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이나 의복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지위 향상을 시키는 것이 아니듯이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지위 향상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여성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지요.

80년도 8차 헌법개헌에서 현행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 구절을 삽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가족법이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 남성들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하면서 양성 차별을 합리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헌법조항에 필히 가족에 대한 평등권에 관한 것을 넣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 후 YWCA를 비롯한 여성단체에서 헌법초안 작성 의뢰를 받아 구체적으로 기초해 주었고 그 결과 2005년에 호주제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는데 이것의 초석이 된 근거법안이 헌법 36조 1항이었습니다. 당시 여성계에서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루어졌다'라며 환호했었지요.

헌법 외에 여성사에 영향을 준 것은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여성사회연구회를 조직한 일입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 여성과 학문에 대해 연구했는데 예를 들어 여성과 역사, 여성과 문화, 여성과 생물론 등에 대해 연구발표를 하였습니다. 연구와 발표를 거듭하다 보니 여성문제도 학문화할 수 있겠다



는 생각에서 ‘여성학’이 시작되었습니다. 1977년에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여성학과’를 교양과목으로 신설하여 강의 내용으로 그동안 연구 발표했던 것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1981년에 대학원에도 ‘여성학’ 과를 신설했습니다. ‘여성학’도 이화대학이 ‘최초’입니다. 역사와 교육에서 이화가 늘 선구자의 역할을 했기에 ‘최초’가 많이 있습니다.

1986년 100주년 기념 학술 강연에서 ‘통합여성론’, ‘통합사회론’을 주장했고 ‘이화와 미래 여성’이라는 강연에서 미래여성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통합’ 이란 말은 요즘 세간에 많이 회자되고 있더군요. 1999년 1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 법률은 공공생활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여성을 사적 생활 분야와 공적 생활 분야에서 차별할 수 없는 기본적 법 규정에 제가 주도적 역할을 해서 공헌한 셈입니다. 이번 ‘목촌법률상’도 한국여성법률문화사에 변화를 가져온 공로를 인정해서 받게 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동창회장 저희들이 이제까지 모르고 있던 일들을



헌법개정의 패거를 다룬 당시 신문기사들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성’이 세계 다른 나라의 ‘여성’ 보다 우수한 점과 지향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총장 한국 여성은 ‘지극한 어머니상’이고 저력이 있으며 자기 분야에서 매우 열정적인 여성들입니다. 시골어머니들이 농사할 때 보면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유교적인 가부장적 사회에 눌려서 제대로 여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아 왔지만 지금은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각 분야에서 여성의 우수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창회장 대학 시절의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시는 ‘대학시절의 나’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또 삶의 진로에 영향을 준 스승이 있으신니까?

명예총장 나의 학창시절은 다른 학생들과는 좀 다른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주 및 학비를 혼자서 해결했어야만 해서, 이를테면 남보다 좀 더 일찍 칠든 ‘아이 어른’ 같은 학생이었다고 할까요? 소위 말하는 학창시절의 낭만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만학천봉(萬壑千峯-만 개의 골짜기와 천 개의 봉우리)’이라고 할까요? 첨첨이



겹쳐진 골짜기와 수많은 봉우리 같은 어려움과 풍상을 겪으며 강인하게 이겨낸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 영향을 주신 스승은 헌법을 전공하고 조언해 주신 이영석 교수님, 다른 대학을 선택하려는 제게 이화대학에서 법학 전공을 하라고 조언해 주신 강원룡 목사님, 이화대학에 남을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신 김활란, 김옥길 전 총장님,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김홍호 목사님, 많은 격려와 호의를 베푸신 선배 이태영 박사님 등 많이 계십니다.

동창회장 다른 대학으로 가셨으면 모교는 큰 별을 잃을 뻔 했습니다. 모교로 와주셔서 천만번 감사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명예총장님을 이화대학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학창시절의 에피소드와 친구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명예총장 4학년 때 김활란 총장님의 ‘여성과 직업’이라는 강의를 들을 때였는데 학생들에게 듣고 싶은 강의제목을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어느 학생이 ‘여성의 법적지위’에 대해 듣고 싶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상식만으로는 그런 강의를 하실 수 없다고 하시면서 법학 전공 4학년 학생들에게 대신 강의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법학과 동기생들은 자존심 문제이기에 강의를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국문과 4학년 학생이 ‘우리들 자존심을 짚죽인 친구’라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학창시절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가족법 개정 토론을 할 때 반대 쪽 남자 변호사가 가족법 개정을 하려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면서 기존의 가족법은 곧 미풍양속인데 이를 개정하려는 사람은 모두 “삼



태기애 담아 져 태평양에 멀리 던지라”고 했던 일 이 기억납니다.

절친한 친구라면 김정순 동기 동창인데 후원금을 보낼 때 꼭 명예총장이 원하는 곳에 하겠다고 해서 제가 요즘은 이화대학보다는 재단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재단에 보내라고 하면 그렇게 하곤 합니다.

동창회장 재미있는 에피소드고 훌륭한 친구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로 평생 ‘양성평등’을 위해 우리나라 헌법 개혁에 앞장 서 오시면서 집필하신 저서 역시 ‘법여성학’ 등 ‘여성인권’을 위한 훌륭한 저서가 많으신데 그 중에서 마음에 흡족하신 저서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명예총장 여성문제에만 관심을 가져서 학자로서

의 훌륭한 저서는 없지만 여성문제에 관한 책이나 논문은 있습니다. ‘법여성학’은 전공자가 읽어야 할 저서로 미국의 재판 판례에 대한 것이고, ‘여성의 인간화를 위하여’는 지금까지 저술한 글과 논문을 제자들이 편집해서 만든 책이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현법학자 윤후정’은 여성신문사와 인터뷰했던 것을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동창회장 저희 총동창회 사무실에 비치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현법학자 윤후정’을 저도 읽어 보았습니다. 동창들과 재학생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랑스러운 이화인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비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교가 세계 1등 대학으로 우뚝 서기를 누구보다 바라실 명예총장님으로서 저희 동창들과 총동창회에 주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명예총장 총장 재임 때 우리 이화여대를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시대의 빠른 변화에 맞춰 강의 내용과 방향을 정보화, 세계화, 전문화, 복지화를 목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21C에는 세계적으로 명문대학만이 존재 가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예전했습니다. 우리 이화대학이 명문대학으로의 존재 가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첫째 사육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신앙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학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미래 사회는 더욱 더 남녀가 서로 동반자로서의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성 문제 해결에 이화대학이 선구자요, 선각자로서 목적을 향해 가는 길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동북아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의 지위가 왜소하고 어렵지만 앞으로 국력이 더 강해지고 문화가 진전되어 무언

가를 줄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갈 때 그 중심에 이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화대학의 존재 의의와 가치와 지향 목표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창회장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 저희들 마음이 풍성해졌습니다. 이화대학에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이 계신 것이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이제 계사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맞이 덕담과 건강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예총장 동창과 학교의 관계는 한 수레 두 바퀴입니다. 동창은 이화의 열매이고 거울이며 서로 합동해서 이화의 목표를 이루고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터가 되어야지요. 새해맞이 덕담은 桐千年老恒藏曲梅一生寒不賣香(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가락을 뚫고, 매화는 일생을 추워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이 좋겠습니다. 이세기씨의 글에서 인용한 것인데 우리 이화에 가장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 비결은 없지만 젊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생활해왔고 담백한 음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교수시절에는 이곳 행정동에서 법과대학까지 걸어 다닐 정도로 많이 걸었고 지금도 되도록 걷는 편입니다. 걷는 것이 무엇보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창회장 바쁘신데도 오랜 시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사년에도 원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총법률상’은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목총 김도창 선생의 업적을 기려 2007년 제정한 상으로 헌법과 행정법 분야 이론과 실무 발전에 협력한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 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축하합니다



이영자(작곡54)동창

2012년도 문화훈장수훈

한국여성작곡가회 명예회장이며 전 이대 음대 교수인 이 동창이 문화훈장 수훈자로 선정되어 2012년 10월 17일에 거행된 시상식에서 은관훈장을 수여받았다.



김태련(심리 60)동창

국제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 총재 취임

이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김태련 아이코리아 회장이 베스트버디스 코리아 대표로 활동 중인 동시에 국제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 총재에 취임하였다.



이배용(사학69)동창

비정부기구 (사)코피온총재 취임

모교 제 13대 총장을 역임한 이배용 전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이 2012년 11월 6일 (사)코피온의 제 4대 총재로 선임됐다. (사)코피온은 해외 자원봉사자 파견과 국제개발 협력을 담당하는 비정부기구(NGO)이다.



유은옥(영문 75)동창

국제존타(ZONTA) 한국지구총재에 취임

(주)진매트릭스 고문인 유 동창이 2012년 6월 국제존타(ZONTA) 한국(32)지구 총재에 취임하였다.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이란 의미를 갖는 ‘ZONTA’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봉사하는 세계적 협력 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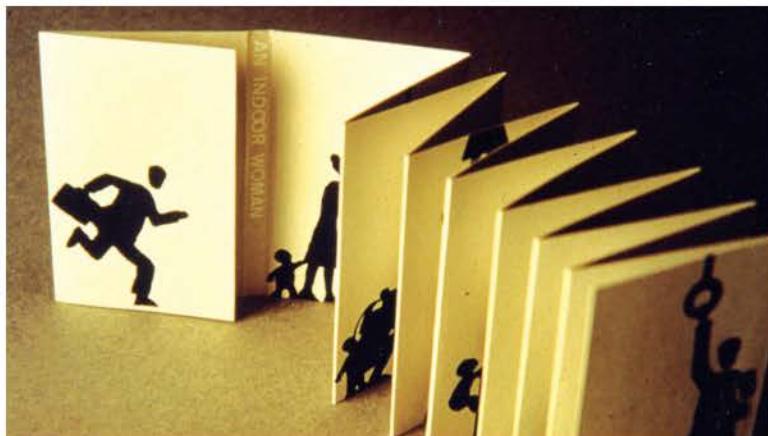
김은실(영문 80)동창

제 29대 한국여성학회 회장 취임

이대 김은실 교수가 2012년 11월 17일 제 29대 한국여성학회장에 취임했다. 한국여성학회는 1984년 10월에 창립하여 학술대회와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여성문제에 대한 학술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일러스트레이터 차정인

남성 중심의 아티스트 세계에 여자로 우뚝 선 북아티스트



002 ab An outdoorman An Indoor Woman 1997

‘유교국가인 동양에서 어떻게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일본 TV에서 토론이 한창이다. 여성 대통령 탄생! 신문타이틀도 야단이다. 국내외적으로 당선자 인간보다도 여성의 흥미있는 주제다.

차정인은 ‘女子’ 작가다. 생물학적인 사회학적인 문화적인 여자에 대해 생각하고 작업한다.

근래 차정인은 ‘女子’에 대한 생각을 그림문자 ‘女字’로 시각작업을 하고 있다. 계집女변이 들어가 있는 한자 중 ‘아름답다’ ‘예쁘다’ 뜻을 가진 100여개를 추리고 그것을 한자의 전서체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는 작업을 위해 한문공부와 서예공부를 수년간 해왔다. ‘女字’ 작품은 작은 쿠션으로 또는 벽판에 휘날리

는 흰 천 위의 대형 설치작업으로 보여지고 있다. 女字의 계집女변이 의도적으로 제외된 부분에 여성이 서 있으면 재미있는 메시지가 된다.

여성의 성 역할 중 가장 유품은 모성성일 것이다. 차정인은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 그는 본격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의 그림을 책에 그리기 시작한 세대가 아닌가 한다. ‘장화가 줄었어요’, 나 너 좋아해,’ 오리할머니와 말하는 일’ 등이 그의 손을 거쳤다. 나중에는 책을 기획하여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다. 그는 그림도 잘 그리지만 글도 잘 쓴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던 80년대 초까지

도 우리나라의 디자인 인식은 아주 낮았다. 특히 일러스트레이션 분야는 더했다. 북 일러스트레이션은 글 옆에 그것을 도와주는 양념이었다. 그 어려움을 받아내며 줄기차게 그렸다. 훗날의 후배 디자이너들이 제대로 디자인료를 받도록 초석을 놓은 셈이다.

“정인언니 유학간대요!”

“그으래? 아니?”

한참을 동화책에 그림을 그리면서 살다가 10살, 6살 난 두 딸 아이를 테리고, 늦게 그는 영국으로 날아가 북 아트를 공부했다. 손 안에 쏘옥 들어갈 작은 책자는 스토리텔링이 담겨있다. 아코디온 스타일의 크레프트지 책자. 한 면은 출근하여 일하는 남자의 스토리이고 반대 면은 빨래하고 청소하며 온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여자의 일상이다. 남성은 밖에서 자기의 역량을 폄 활동하지만 여성은 집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다는 메시지. 책장을 접은 아코디온이라는 형식에서 똑같이 분할된 시공간, 남녀, 남편과 아내, 누구도 더 하거나 못하지 않은 똑같은 존재 인간임을 앞뒤, 남녀, 안팎이라는 입체적 구조로 표현하고 있다.

샌드위치모양의 노란 책 작업도 있다.

그의 북아트 작품은 런던의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움 (V&A, National Art Library)과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대학 도서관들과 개인 컬렉터들이 다수 소장하고 있다.

그는 서로 다른 분야의 작업들을 하며 떠올린 생각이나 시도들을 또 다른 작업으로 연결하기도 한다. 얼마 전 선보인 인형 작업이 그것이다. 몇 년 전 생활미술과 동창회에서 아프리카에 보낼 신생아 모자를 떠주는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팔십 여 개의 모자를 떠 보내면서 기술이 늘은 것 같다.

2012년 8월 생활미술과 시각디자인 동문그룹전인 ‘비주얼메시지 30주년기념전’에 출품한 그의 인형은 차라리 철학적이다.

두리뭉실한 몸매, 실제 그녀의 몸매도 그렇다. 어디를 굴러도 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형상.

앞치마를 두르고 밥주걱의 밥을 떼어먹으며 얼마나 많은 질고의 역사를 살아왔는가. 얼마나 불이익을 받으며 그것이 운명인 양 견뎌왔는가. 무표정한 눈, 입에서 모든 것을 참아낸 당당함. 쉽사리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의연함이 뱉다. 그러면서 옹기종기 모여 살을 맞대며 온기를 전하고 받는다.

그는 종이에 천에 공간에 그림을 그리고 만들고 한다. 거기에는 여자가 있고 가족이 있고 따스함이 있다. 그는 나의 30년 전 제자이다. 뭐 이젠 같이 늙어가는 처지다.



이영희

이대시각디자인과 명예교수

1968 이대 미대 졸업

차정인

1983 이대 생활미술과 졸업

1985 이대 대학원 생활미술과 시각디자인 전공 석사

1997 영국 런던국립예술대학 캠버웰컬리지 MA Bookarts 수상 경력

1982 제일기획 대학생 광고대상 광고작품부문 대상 수상

A Piece of String, An Outdoor Man/An Indoor Woman, Maze, Flat Toilet, Changing Frame, Together But Alone, Real Life with Partner, Woman, 어린이도서 일러스트 제작



기획 시리즈 | 소설가 김선주가 만난 이화 예술인

아름다운 이야기를 화폭에 담는 독창적인 화가이자 작가 황주리 (서양화 80)

화려한 색채로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 황주리 선생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슨 과를 몇 년도에 졸업하셨나요?

1976년도에 미대 서양화과를 입학해서 1980년에 졸업했어요.

미대 서양화과를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하신 어머니와 친태양 사라는 출판사를 경영하시는 아버지의 슬하에서 자랐어요. 번역일도 하셨던 어머니는 그림도 무척 좋아하셨어요. 유년시절의 저는 말도 없고 무척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5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학원에도 다니면서 아주 열심이었어요. 또 글쓰기도 좋아해서 글도 써보곤 했지요. 하지만 예술학교는 가지 않고 숙명여중이라는 일반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상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 국문과를 갈까, 서양화과를 갈까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나를 돌아보니 글을 쓸 때보다 그림을 그릴 때가 더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미대를 택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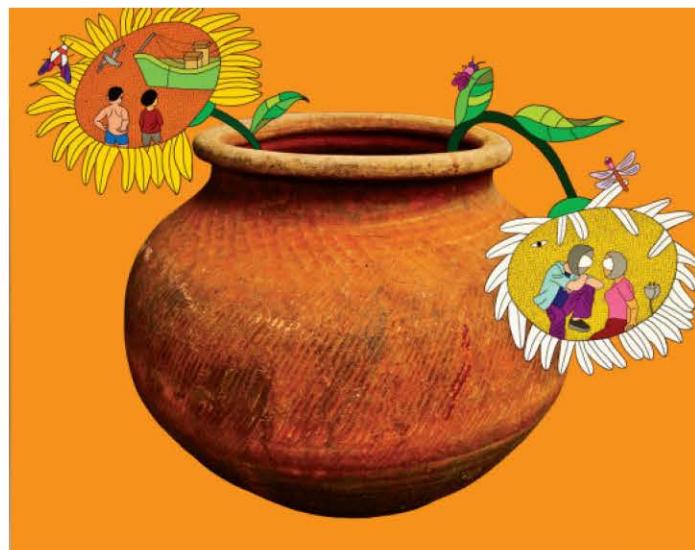
미대를 졸업한 뒤에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홍대 대학원 미학과를 가서 졸업하고 나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시간강사를 하다가 1987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NYU(뉴욕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97년까지 미국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의 절대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오로지 작품 활동만을 하면서 그곳에서 활동했지요. 그런데 9.11 테러사건이 일어나자 그 근처에 살았던 제가 갑자기 타국이 무서워지고 고국이 그리워져서 즉시 귀국하

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껏 화가로서 어떤 제도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오로지 창작에만 전념하고 있어요.

황선생의 그림으로 가득 찬 이 작업실은 온통 성인용 동화가 그대로 살아서 속삭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동안 가장 큰 성과와 보람은 무엇이었는지요?

예술가가 창작으로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행복이지요. 아마도 나만큼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사는 예술인은 얼마 없을 거에요. 저는 그동안 오로지 그림에만 몰두하면서 나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해야 하는 창작의 세계에 파묻혀서 세월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결혼도 특별히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별로 후회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림을 통해서 태어나는 열정을 쏟느라고 절대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림은 제가 살아가는 전부이고 존재 이유에요.





화가이면서 소설도 쓰는 작가이신데, 화가로서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소설을 썼나요?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해서 시나 수필을 써서 교지에 발표하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소설을 써서 국어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너는 그냥 수필을 쓰는 것이 낫겠다고 하셔서 접었었죠. 그런데, 황석영 소설가님과 도종일 평론가님이 하시는 <문학웹진 나비>라는 잡지에서 그림소설을 써보라는 청탁이 왔어요. 저는 소설을 쓴 적이 없다니까 '선생님 그림이 곧 소설이에요.'하면서 거듭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쓰기 시작했지요.

먼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하나 다른 단편소설을 써서 2년 동안 연재했어요. 지난 6월에 <그리고 사랑은>이라는 제목으로 묶어서 단편집으로 나왔어요.

화가와 작가로서의 예술적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며, 두 장르의 특징과 표현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요?

제게 있어서 글은 시각적인 언어이고 그림은 문학적인 표현의 다른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각자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 소설은 그림의 범주 안에 있고, 제 그림은 소설적인 이야기를

풀고 있어요. 선량하고 순수한 인간들이 끝없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그림을 보고 모두들 성인 동화를 보는 것 같다고 해요. 화가와 작가의 현실적인 차이는 글을 쓰는 작가는 펜과 종이, 컴퓨터만 있으면 되지만 화가는 넓은 공간과 캔버스, 물감 등 도구가 많이 필요해서 간단하지가 않지요.

미술대학을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대학생이었을 때 저는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늘 자 유분방하고 수업을 듣는 것을 지루해 했고, 뚜렷한 롤 모델도 없다고 불평하면서 학교도 잘 빠지곤 했어요. 교수님도 잘 따르지도 않고 멋대로여서 아마도 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친구들과 학교 앞 카페나 파리다방에 앉아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노는 것을 공부보다 좋아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래도 그때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라는 생각으로 혼자서 아련한 추억에 빠지곤 하지요.

좋아하는 화가와 작가는 누구인지요?

저는 화가로는 예나 지금이나 고흐를 제일 좋아합니다. 화가로서 치열하게 살면서 개성 있는 그림을 그린 그의 작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작가로는 베르나르트 쉴링크라는 독일 소설가를 좋아합니다. 그의 단편집 <다른 남자>와 장편소설 <The Reader> (책 읽어주는 남자)가 좋아서 몇 번이고 다시 읽곤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그린 저의 작품들을 모두 모아서 한 공간에

놓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이에요. 저만의 미술관을 마련해서 제가 이 세상에 없다 해도 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찾아와서 저의 그림을 보아준다면 저는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그림을 그릴 거구요, 좀 더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거예요. 물론 글도 계속 쓸 거구요.

이대 동창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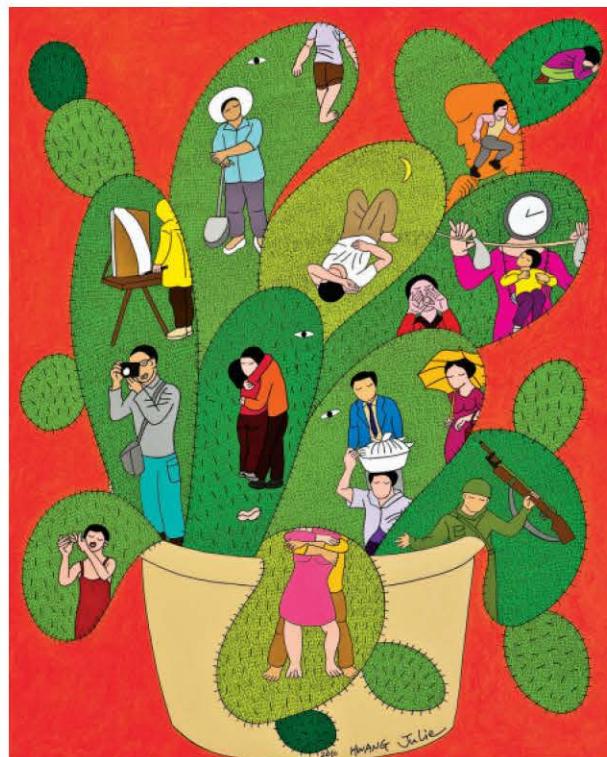
이대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졸업하고 나이를 먹을 수록 오히려 학교에 애착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야 제가 다녔던 이대가 참으로 훌륭한 학교라는 것은 느끼곤 해요. 젊고 발랄한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이대야말로 세계적인 대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훌륭한 선배님과 후배

님을 만날 때마다 이화대학이 자랑스럽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교정이 너무나 아름답고 잘 가꾸어져서 자주 가서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면서 이대가 주는 분위기에 흠뻑 젖곤 하지요. 언제 어디서 만난다 하더라도 이대 동창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글. 김선주/불문65 한국소설분과 회장, 이화동창 편집위원

황주리 이화여대에서 서양화를 전공, 흥대 대학원에서 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이후 뉴욕과 서울을 오가면서 작업을 하였고, 1991년에 뉴욕대대학원을 졸업했다. 평단과 미술 시장에서 인정받는 몇 안 되는 작가이며, 유려한 문체로 쓴 산문집들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세월’, ‘땅을 밟고 하는 사랑은 언제나 풀이 물었다.’ 등이 있다. 최근에는 첫 그림소설집 ‘그리고 사랑은’을펴냈다.



이화사위석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 많은 남편

강창희

6선 국회의원(11, 12, 14, 15, 16, 19대, 대전 중구)
제19대 국회의장(전반기)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전 과학기술부장관
아내인 이재숙 동창은 의과대학을 1973년에 졸업한
소아과 전문의이다.



내 마음이 아내를 불러낼 때 아내는 항상 노란색
옷을 입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육사생도 4학년 때, 3군 사관학교 체육
대회가 열린 효창운동장이었다. 운동장을 내달리
면서도 나는 연신 스탠드를 훔쳐보며 그녀를 찾았

다. 하지만 경기를 마칠 때까지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안 왔나보다, 실망이 너무 크고 가슴에 큰 구멍이 난 것처럼 허전했다. 그 며칠 전 선수용으로 나온 티켓 한장을 건네며 그녀가 와주기를 마음속으로 고대했었다. 꼭 와달라는 말은 차마 못 했다. 그래도 올 줄 알았는데….

고개를 숙인 채 운동장을 나오다가 문득 스탠드 한 구석을 바라봤을 때, 노란 옷을 입은 그녀가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내 가슴에 꽉 찬 사랑을 느낀 것은 틀림없이 그 순간이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생 때였다. 대전에 ‘한다발’이라는 고교연합 혼성서클이 있었는데, 그녀는 서클 2년 후배였다.

결혼은 노란 옷을 입은 그녀가 나에게 미소 지어 준지 5년 만인 1973년에 했다. 아버님이 병환 중이어서 어머님이 몹시 서두르셨다. 9월 12일이었다. 아버님을 생각해서 멀리 가지 못하고 유성온천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버님은 다음날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결혼기념일은 아버님 기일이다.

서른 네 살이던 1980년, 나는 군대를 떠나 정치의 길로 들어섰다. 아내는 완강히 반대했다. 세상의 어느 아내가 남편이 정치판에 들어간다는데 좋아 할 것인가. 그때서부터 아내의 고난은 시작됐다. 처음엔 잘 나갔다. 국회의원이 되고, 30중반에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하고, 1985년 2월에는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과천에서 개업하고 있던 아내는 대전으로 옮겨 병원을 열고 대전사람이 됐다.

정치의 쓴맛을 처음 맛본 건 1988년 13대 총선이었다. 지역바람에 밀려 나는 추풍낙엽이 됐다. 아내는 보좌관들이 정해주는 대로 표를 얻기 위해서 가라는 데를 다 갔던 모양이다. 마치 모범생이 밤

새워 숙제를 하듯이]. 진료하랴, 5층 아파트 오르내리랴, 안 그래도 무리가 갔던 아내의 무릎이 그때 많이 상했다. 지금도 가끔 무릎을 불편해하는 아내를 보면 ‘이 미육한 사람아’ 하는 생각과 미안한 마음이 같이 들곤 한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당선되기 전에도 나는 두 차례 연거푸 낙선했다. 실업자 생활이고, 자존심을 좀 세운 말로 하자면 야인생활을 내리 8년 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50 중반부터 8년 이었다. 나는 그렇다 치고 아내는 어땠을까.

아내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온 사람이다. 처음에는 유방암이었는데, 89년 3월이었다. 친구부인이 유방암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에게 검사를 권했는데, 2기 진단이 나왔다. 임파선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5년 투병 끝에 완치판정을 받았다. 지금도 아내의 왼쪽 손등은 항상 부어 있고, 쉬 피로를 느낀다. 가끔 그 손등을 훔쳐보노라면 내 가슴에 서늘한 바람이 인다.

정말 아내를 잃는 줄 알았던 것은 유방암 완치판정을 받고 7년이 지난 2001년이었다. 폐암. 의사는 유방암이 폐로 전이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내의 나이 겨우 53세였다. 눈물이 끝없이 흘렸고, 절망감이 사무쳤다. 집을 잡혀 돈을 만들고,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폐암으로는 세계 최고라는 휴스턴의 MD앤더슨으로 갔다. 이왕 죽을 거면 한국에 가서 죽겠다고 울던 아내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몹시 무서워했다. 폐의 이상조직을 통째 들어내는 수술이었다.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나는 ‘수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생각이 났을까. 아마도 아내보다 더 한 무서움과 절망감에, 아내를 살려달라는 절박한

마음이 그런 대답을 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나중에 아내는 하나님이 수술하신다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공포가 없어졌다고 내게 말해주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6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아내의 폐에서 떼어낸 시커먼 덩어리는 암이 아니라 세균 덩어리였다. 의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내가 고마웠고, 아이들과 부모님 생각이 났다.

지금 아내는 건강하다. 가끔 무릎을 아파하기도 하고, 왼쪽 손등이 부어있기는 해도 야트막한 산에는 함께 올라갈 정도는 된다. 19대 총선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뛰었다. 이번에도 아내는 나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 밤마다 파김치가 되어 집에 들어오는 아내를 보면서 나는 결과가 어찌되든 이번으로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했다. 다행히 압승을 거두고 국회의장이 됐다. 아내는 대전 생활을 일단 접고 한남동 공관으로 들어왔다. 어찌 보면 30년 만에 우리는 다시 한 집에서 완전한 부부생활을 하는 셈이다.

요즘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내의 얼굴은 편안하다. ‘당신과 결혼 이후 처음으로 행복을 느낀다.’는 말도 했다. 이제 3년 후면 정치생활을 마감한다. 그 때가 되면 아내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가끔 생각한다. 짚을 적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으니,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할 생각이다.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내가 아내에게 해준 것이라고는 어쩌다 몇 번 끓여준 된장국밖에 없다. 드라이브도 하고, 여기저기 아내가 좋아하는 곳 여행도 실컷 해야겠다. 아내는 노란색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두 번씩이나 나를 죽도록 놀라게 한 데 대해서는 아내가 내게 미안해해야 하지 않을까?

수업자료 준비로 바쁘게 보낸 한 해

최금숙(제약 90) 김용균 부부 선교사



이곳 필리핀은 우기철이 되어서 거의 매일 밤 비가 와서 아침저녁으로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곳도 요즘에는 감기환자가 많은 시즌입니다. 한국은 이제 겨울로 가는 길목이겠군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은 현재 정치적으로 민다나오 이슬람 세력과 정부 간의 새로운 평화협정체결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가 불황의 늪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필리핀은 오히려 내수경기가 활발한 편입니다. 아마도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수사역

일주일 전에 대학은 1학기를 마무리하고 2주간의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목들의 수업자

료를 준비하느라 이번 학기도 무척이나 바쁘게 보냈습니다. 강화된 교원 자격에 따라서 주요 전공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을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교수과목들 또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전체 대학들이 이러한 면에서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부족하여 학생들과의 개인적 만남을 갖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 졸업한 제자 1명을 만났는데 졸업하고 중동에 나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돌아와서 목회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마게티에서 자동차로 2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사역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이 지난번 지진으로 도로와 가옥들이 파괴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한 교회당도 예외는 아니어서 건물의 일부와 담

장이 무너져 일부 보강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사정을 듣는 과정에서 건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뻤습니다. 향후 동역자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벤처 동아리 활동

1기 사역 동안 형성되었던 볼텍스 벤처 클럽 활동을 재기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학생들만으로 구성하여 기술전수와 학습을 위주로 하던 활동이었지만 이제는 그때의 멤버가 졸업생이 되어 모임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복음적 가치관을 심어 이 지역과 나라를 생각하고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선교사역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놓는데 있습니다. 아직은 모임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독학생회

이번 학기에는 필리핀 중부지역 간사로 섬기고 있는 라라자매가 실리만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는 관계로 두마계티에 머물 수 있게 되어 3개의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학생회의 모임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각 캠퍼스별로 정기적인 성경공부와 연합기도회 및 큰 모임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학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네그로스 주립대학에는 기독학생회 정기 모임에 10명 정도 참석을 하여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캠퍼스 밖, 공원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모임을 통하여 복음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형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세부에서 일주일 동안 열리는 리더자 훈련캠프에 6명의 형제자매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자비로 갈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일부 재정 후원을 하여 참석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각 캠퍼스에서 핵심 멤버로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소식

현중이와 혜인이는 이곳에서 첫 번째 학기를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간 몇 년간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돌아와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교 생활에서는 누리기 힘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 잡힌 교육을 받고 있어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 온가족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강건하게 지내도록
- 김선교사가 2학기 강의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특히 육체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 기독학생회 각 모임이 부흥되고 양육과 재파송이 이루어지도록
- 라라간사가 학업과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하도록
- 기독학생회 3곳의 캠퍼스(실리만, 동네그로스 주립대, 파운데이션대학) 내 동아리 등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 선교부지의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 아모리오 사역자의 영육간의 강건과 교회사역을 위해서

백제인 DNA 찾아 천년 너머 시간여행의 경이로움

유정희 의작 83



천년을 너머 시간여행을
떠난다는 기대감으로 새
벽 공기마저 예스럽게 느
껴지는 아침이다! 유려한
백제의 멋을 지닌 곳, 부
여로 답사를 간다. 사비
성! 삼천궁녀 낙화암의 비

련의 전설을 남긴 곳, 문화의 전령사로서 여유를
향유한 곳으로!

집합장소에서 처음 뵙는 분들도 이화라는 끈으로
엮여서 일까 전혀 낯설거나 어색하지가 않다. 50이
넘은 적잖은 나이에 막내가 되어 선배님들의 귀여
움(?)을 받으며 맨 뒷줄에 자리를 잡았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인사를 나누는 동안 지루할 새도 없이
부여 정림사지 박물관 앞에 닿았다.

백제 탐방에 서프라이즈! 지식인 한류스타! 유흥
준 전 문화재청장께서 직접 답사를 이끌어주신다
니 기대 이상의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행사는
박경임 문화부장님의 삼고초려 끝에, 토요일마다
수십대 일의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는 ‘유흥준과
함께 하는 부여 답사’ 프로그램에 가뿐하게 합류하
게 된 사연을 말씀하시며 답사를 위해 집필하신 책

자까지 나누어 주셨다.

백제 여행 크랭크인! 기원 전 800년 청동기시대
원형을 그대로 복원한 송국리 선사유적지에 나무
울타리를 두른 방어시설과 네모, 원뿔 지붕을 엎은
집들이 모여 있다. 웅크리고 움막 안에 들어가 선
사인의 생활을 가늠해보며 3천년의 시간을 넘나들
었다. 건너 편 한창 발굴 중인 현장에서 선사집터
고증과정에 대해 듣고 나니 복원 마을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다. 누적된 시간이 속살을 드러낸 곳!
삼천년 전 삶의 족적이 고스란히 땅 속에 남아 있다
는 것이 경이로웠다.

구릉 위에 우뚝 선 아득한 조상의 터에서 내려와
백제의 혼을 따라 무량사로 길을 나섰다.

가을 산길 속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며 천왕문에
다다르자 절 마당 느티나무 아래에 일행들이 모여
있고 그 뒤로 양손에 지팡이를 딛고 선 법사처럼
극락전이 근엄하게 버티고 있다. 조선 중기에 재건
축된 이층 전각으로 김시습이 썼다는 ‘극락전’ 이
라는 글씨도 절의 위용에 걸맞게 힘 있고 우람한데
수양대군이 왕이 되자 세상을 비관해 무량사에 은
둔한 매월당의 강직하고 비변한 성품이 그대로 느
껴졌다. 나중에 영정각에서 본 김시습 초상 속 생



김새는 글씨와는 대조적으로 선이 가는 여린 모습이었다. 요샛말로 반전이다. 다음은 나지막한 돌담길 따라 소담스러운 우리 꽃과 고삐 맨 송아지와 수수밭 너머 시골 정취 물씬 나는 반교리 마을. 걷다 보니 마을 길 끄트머리쯤에 유 선생님의 황토집이 개울 쪽으로 돌아 앉아있다. 은퇴 후의 소박한 시골 별채 ‘휴휴당’. 꿈의 궁전이 여기 있다.

집주인이 장대를 들고 개울가로 나가시더니 밤나무 가지를 마구 쳐서 밤송이를 떨어낸다. 학습 분위기였던 답사현장에서 벗어나 즐거운 한 때 ‘휴휴시’도 잠시, 숨겨 놓은 보석 같은 곳에 데려가신다니 호박 널려있는 정겨운 돌담을 아쉬워하며 차에 올랐다.

뜨문뜨문 몇 채 집도 없는 오목한 언덕에 오롯이 흘로 선 가녀린 삼층 석탑! 고려시대 한산사 절터에 세운 백제 양식의 탑이라고 한다. 독특해서 생소하지만 찬찬히 훑어보니 예사롭지 않은 고려인의 심미안이 느껴졌다. 창 넓은 모자를 쓴 늘씬하고 기품있는 여인이랄까? 현대적 미니멀리즘을 예

견하듯 시대를 뛰어넘는 세련된 비율과 울동감을 느끼게 하는 미세한 각도가 놀랍기만 하다. 우리의 선은 중국의 그것처럼 요란하지 않고 일본의 그것처럼 멋진지도 않다. 장하리 작은 석탑이 주는 우리 문화에 대한 충족감! 행복한 순간이다.

지금까지의 유형 문화재에서 무형 문화재로 자리를 옮겨 백제 왕의 행차를 재현하는 부여군청 사거리에서 행렬을 맞는다. 약간 어설퍼 보이는 백제인의 부활이지만 우리 안에 살아있을 백제인의 DNA를 찾으려 열심히 셔터를 눌렀다.

오늘 부여탐방의 크랭크업! 뉘엿뉘엿 석양으로 묘한 신비감을 두른 정림사 오층석탑이 우뚝 서 있다. 육중한 몸돌로 견고하게 땅을 딛고 웅장하게 뻗어 있지만 우아하게 굴린 발침들과 유려하게 끝을 올린 지붕들에서 단순히 크기에 놀리지 않도록 배려한 백제인의 인간미가 느껴진다. 돌아오는 길에도 역시 조종남 회장님은 발군의 유머로 설새 없이 웃음을 주며 엔터테이너로서 리더로서 소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주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들의 새해 맞이 양케이트

1. 2012년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 한 소감은?
2. 소속한 지회의 자랑과 2013년도 계획은?
3. 북미주지회연합회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 조언 등과 총동창회와 한국기주 동창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2012년 11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한 동창들이 나누는 참된 우정과 모교 사랑을 바라보며 동창회와 동창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새해를 맞아 해외지회 중 동창들이 제일 많은 북미주지회 동창들에게 동창회의 의미를 들어본다.



박문순
(사학 66) 뉴욕지회장

1. 한마디로 “모두 대단하십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행사 규모나 참석한 모든 동창들의 열정이 ‘이회’라는 한 기치 안에서 서로 뭉쳐 어우러지는 단결력에 다시 한번 선배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보슬비 맞으며 했던 관광과 밴쿠버의 된장찌개가 별미였으며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과만점인, 손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을 가르쳐준 총동창회장께 감사한다. 총회의 하이라이트 ‘TALENT SHOW’의 신선히과 열정에 감탄하였다.

2. 으뜸가는 자랑거리는 쟁쟁하고 든든한 선배들이 다. 언제나 자발적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 후배들도 서로 상호간에 몸사리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일이면 일, 끼와 재능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랄 때가 많고 항상 흥미롭다. 특히 Dancing Team의 획기적인 의상과 안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리 지회 동창들은 세계적인 예술 도시에 살고있는 뉴욕인답게 많은 동창들이 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특별하다.

3. 새해에는 지금 하고 있는 동창회 장학금 후원에 좀 더 힘을 보태 목표한대로 5년 안에 꼭 이를 수 있도록 열심히 동창들 간의 상호간의 유대를 넓히고 젊은 동창들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조수현
(수학76) 북미주지회연합회 이
사장(전 보스턴지회장)

해서 비행기를 탔으나 늦게 떠나서 경유지에서 비행기를 놓치고 잠을 설치며 걱정하다가 간신히 새벽 비행기로 도착한 동창 부부를 포함해서 모두 19명이 록키투어 3박4일을 다녀왔다. 상쾌한 눈경치와 폭포 내려오는 소리, 안개에 가려 있다가 모습을 보이곤 하던 록키의 산들, 함께 버스에 탔다고 좋아하던 모습들, 꼭 다시 여름에 오리라 마음을 다짐하게 만들던 풍경들이 그립다. 그래서 When it's springtime in the Rockies~ 노래를 외우면서 다녔다. 밴쿠버 총회에도착하니 녹색 옷을 입은 저희원들의 안내와 접수, 호텔방 체인,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회의가 칙칙 진행되는 모습에 감탄했다.

보스턴의 막내, 이동은 동창은 이화를 다닐 때는 미처 알지 못한 귀한 모교와 선배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고 감사했다.

2. 2013년에는 10월 24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북미주 동창들이 모인다. 갈 곳도 많고 구경거리가 좋은 곳에서 오랜만에 새로 만날 동창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흐뭇한 기분으로 새해를 시작하려 한다.

3. 서울에서 더욱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면 더욱 좋은 자리가 될 것이고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참석할 동창들을 위해서 좀 더 진선미의 가치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총동창회에서 일년에 네 번이나 회보를 일일이 보내주고 동창수첩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특히 감사한다. 수첩에 북미주 지회장들의 연락처도 있으니 이사하거나 방문하면 연락도 주고 지회 동창회에도 참석해주면 좋을 것이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웹사이트 (ewhain-na.com)에 맨트도 남겨주길 부탁드린다.





양승희

(사학73)북가주지회20,21대회
장, 북미주지회연합회 선출이사

1. 2002년 플로리다에서
개최된 제1회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에 참석한 후

2012년 제 11회 밴쿠버 총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감회가 깊고 남다르다. 그동안 북미 주 각 지회에서 돌아가며 총회를 주최하고 국제재 단이사회도 항상 함께 하여 행사가 더욱더 빛나는 것 같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밴쿠버 총회에 참석해보니 북미주지회연합회가 갈수록 한식 구가 되어감을 느꼈다. 특히 요새는 인터넷 시대라 더욱더 자주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동창들 간에 우정을 더 쌓을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 1년에 한번 총장과 총동창회장을 직접 만나고 모교 소식과 총동 창회 소식도 전해 받으며 각 지회의 소식과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니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이 아닐 수 없다. 모교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기금 모금에 참가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먼 이국땅에 이민 와서 북미주 각 지회가 1년에 한번 총회를 가지며 훈훈한 우정을 쌓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 된 일인지 이번 밴쿠버 모임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2. 북가주 동창회는 1964년에 결성되어 지금까지 동창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발전을 위해 힘쓰



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봉사도 앞장서고 있다. 동창 회원은 500명에서 700명 정도가 되며 샌프란시스 코 지역, 오클랜드 지역, 산호세 지역으로 돌아가며 매달 첫째 토요일에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다. 2014년에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많은 동창들이 오셔서 충분히 만족하게 하는 게 최대의 과제이며 열심히 노력할 예정이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회는 항상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였고, 밴쿠버 총회의 각 지회 탈랜트 쇼에서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변사또의 생일잔치'를 공연하기도 하였다.

3. 첫째 무엇보다 좋은 기후에 총회를 개최하여 좋은 프로그램으로 각 지회의 많은 동창들을 참여시키고 국제재단이사회와도 함께 하는 게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한다. 많은 지회 동창들이 참석하여 서로 사랑하며 우정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조성숙

(가정 64) 애틀란타지회장

2012년 벤쿠버 총회는 참 의미있었다고 생각한다. 진지하게, 회칙 개정을 마쳤으며 마찰없이 진행된 총회에 감사했다. 그만 아쉬움이 있었다면 일일 관광을 떠나야 하는 시간으로 인해 참석한 지회의 보고를 간략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총회를 준비한 지회는 처음 그곳을 방문한 동창들에 대한 대접이랄까, 그 점 때문에 관광을 준비한 것이지만 지회를 운영하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없는 아쉬움이 더 컸다. 2013년 워싱턴 총회에서는 시간에 쫓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2015년에는 이곳 애틀란타에서 북미주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젊은 동창들의 모임이 저조한 편이라서 걱정이다. 지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여 자녀들 Care 문

제가 주부들이 할 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이사회를 조직하는 등 바쁜 계획 속에 새해를 맞이할 것 같다. 자랑이라면 2012년 송년 파티에 이화 가족 80여 명이 모여 즐겁고 홍보에 보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특별히 모교 총장과 총동창회장께서 보내준 인사와 격려로 더욱 힘을 얻었다. 2013년에는 젊은 동창이 회장을 맡아 지회를 운영하게 되니 기대가 크다.

3. 지회에서 되도록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겠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은 잔치라도 손님이 없으면 그 잔치는 훌륭하다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감히 말해본다. 모든 지회에서 임원들이 참석한다면 훌륭한 총회가 되리라 믿는다. 특히 각 지회에서 준비한 장기 자랑은 그 지회의 모임의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부럽기도 하고 또한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기도 하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적극 추천하고픈 생각이다. 푸짐한 상품도 일조하였다. 준비하는 지회는 힘이 들겠지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같은 큰 행사를 하고나면 지회가 더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보고서

워싱턴에서 개최할 2013총회를 기대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화여대 동창들의 친목과 모교 발전을 위한 가장 큰 행사인 제11회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와 제42회 이화국제재단 이사회가 2012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가 있는 캐나다 밴쿠버의 버나비 메트로타운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밴쿠버 지회(회장 강유순, 약학 69)에서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이 행사를 후원, 격려하기 위해 모교 김선옥 총장, 양옥경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하여 총동창회 조종남 회장과 박유나 부회장, 유영선 홍보

부장이 참석하였다. 북미주 각 지회의 동창 200여 명도 참석하였다.

첫날 11월 1일

총회 이전에 캐나다 록키산맥의 3박4일 여행 일정을 이미 끝내고 돌아온 조종남 총동창회장을 포함한 20여 명의 동창들과 북미주 각 지회 동창들이 밴쿠버지회 동창들의 환영을 받으며 접수를 마친 후 오후 6시부터 윤정자(영문 64 뉴욕)강사의 종이접기 교실, 이장연(성악 85 밴쿠버) 강사의 합창교실

을 열어 각 지회에서 모인 동창들이 함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8시부터 시작한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회는 40여명이 참석하여 이정렬(사회생활 61, 워싱턴DC) 고문의 기도로 시작되어 전회의록을 통과시키고 회계보고 후 본격적으로 회칙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한 후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 김정진(의학 70, 클리블랜드), 안미상(약학 66, 뉴욕) 국제재단 이사들은 해외동창기금 모금에 대한 열띤 설명과 호소를 하였다.

향후 주최지(2013년 워싱턴, 2014년 샌프란시스코, 2015년 애틀란타)를 결정한 후에 폐회되었다.

둘째날 11월 2일

아침식사 후 동창들은 종이접기, 합창 클래스 후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지로 유명한 휴스러 리조트 관광을 하였다. 저녁 6시 30분 약 200여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과의 만찬’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선옥 총장, 조종남 총동창회장, 강

유순 밴쿠버지회장, 조수현 지회연합회 이사장이 북미주지회연합회 지회기를 높이 든 기수 죄앤 김(기독 91) 동창과 함께 만찬장에 입장하여 총동창회의 특별한 선물인 북미주지회연합회기 전달식을 하므로써 행사가 시작되었다.

한나리(체육 92 남가주지회) 사회자의 개회 선언, 교가 제창, 강혜경(영문 83) 동창의 기도 후 강유순 연합회 회장은 서울과 북미주에서 참석한 동창들과 특히 기상 이변의 어려움을 뚫고 힘들게 참석한 동창들께 감사와 환영 인사를 하였다. Susan Ritchie(통역대학원 01 First Steps Canada)의 축하와 환영 인사 후 이소라(성약 90) 동창의 ‘주기도문’ 독창, 조종남 총동창회장, 조수현 지회연합회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영교(영문 63, 남가주) 시인의 시낭송 후 모교에서 준비한 동영상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며 김선옥 총장은 나날이 발전하는 모교와 재학생들의 활약상을 전하였다. 그동안 미처 모교를 방문하지 못했던 북미주 동창들은 모교의 변천 모습과 캠퍼스에서 열심히 배움을 정진하





는 후배들의 모습에 감탄하였다.

남루시아(기독교학 92) 동창의 식사기도와 기념 촬영을 마치고 박혜정(관현악 82) 동창의 지휘로 Fusion Jazz Band의 음악을 들으며 만찬을 한 후 Sharon Z. Rader 이화 국제재단감사의 국제재단 소식, 모교 양옥경 대외협력처장의 모교 소식, 박혜정, 이장연(성악 85), 김태원(피아노 86) 동창 등 의 연주와 더불어 밴쿠버지회 합창단의 합창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총장과 총동창회장과의 만남의 시간'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이었다.

세째날 11월 3일

오전 9시 강유순 지회연합회 회장의 진행으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열려 북미주 17지회의 회원 80명이 참석하였다. 개회 선언, 김영교 동창의 개회기도, 교가 제창 후 “북미주 동창이 이화의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가 됨을 바란다”는 조종남 총동창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 날 총회는 각 지회 (남가주, 뉴욕, 덴버, 보스톤, 밴쿠버, 북가주, 시애

틀, 애틀란타, 위싱턴DC, 센트루이스, 토론토,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휴斯顿 지회 등) 사업보고 와 양승희 서기의 전회의록 낭독, 이문희 이사의 2011년 결산 보고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김영주 회계의 2012년 예산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조수현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사항과 이사회에서 통과된 회칙 개정안을 발표하여 유미화 고문 동의와 박문순 뉴욕지회장의 재청이 있어 만장 일치로 총회 인준을 받았다.

또한 향후 총회 개최지로 2013년-워싱턴 DC, 2014년-샌프란시스코, 2015년-애틀란타, 2016년-휴斯顿, 2017년-뉴욕으로 결정된 것을 발표하였고 인준되었다. 안미상 재단이사의 이화국제 재단 이사회 사업보고 후 김정진 이사가 해외동창 기금모금 보고를 하며 북미주 동창들이 1년에 \$100 이상 앞으로 5년 동안 기부하면 백만 달러가 되므로 이화여대 130주년에는 이자만으로도 모교 를 돋게 될을 명시하며 동창들의 많은 참여를 호소하였다.

이 날 1년에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모인 총회인데

좀 더 시간을 길게 갖고 서로 유익한 정보도 교환하고, 토의 시간을 더 가지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강유순 회장의 폐회 선언으로 총회를 마친 후 동창들은 멋진 밴쿠버 시내 관광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저녁 6시 30분부터 시작된 연례 대만찬 행사에는 한인회장 등 외빈도 함께 자리하여 3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의 멋진 파티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나리 사회자의 개회선언, 재단이사 Dr. Mullinex의 기도, 강유순 북미주지회 연합회장의 환영인사 후 송유순(무용 85) 동창의 축하 예배무용가 있었으며 조종남 총동창회장의 인사, 이화 동영상 기적의 역사 시청, 김선옥 총장의 인사말, 양옥경 대외협력처장의 모교소식이 전달되었다.

구자형 목사(강봉숙 동창부군)의 식사기도 후 박혜정 동창의 지휘로 캐나다 뮤즈 청소년 교향악단의 아름다운 연주가 있었다. 식사후 2부 순서로 외빈으로 초청한 이용훈 밴쿠버 한인회장과 김일수 6.25 참전유공자 회장의 인사와 라이브 경매 후 내빈 및 각 지회 소개가 있었으며 특별 축하 외빈인 연아마린 B.C. 상원의원의 초청강연도 있었다.

지회 틸랜트 쇼에는 밴쿠버, 뉴욕, 북가주, 센트루

이스, 휴스턴, 록키 관광팀 등이 출연해 큰 웃음을 주었고 이장연(성악 85) 동창 지휘, 김태원(피아노 86) 동창 반주의 지회연합회 합창단의 멋진 합창 후 시상식이 있었다. 폐회 선언 전 강유순 회장은 2013년 총회 개최지인 워싱턴지회에 교기 전달을 하였고 이명지 회장은 '이화 2013 워싱톤DC' 초대 인사로 화답하였다.

연례 대만찬의 마지막은 동창 모두가 한나리 동창의 리드로 YMCA 울동을 하며 둑근 원을 만들어 서로의 사랑과 감동을 전하였고 해어짐을 아쉬워 한 동창들이 다시 바카렐룸에 모여 열창을 하여 다음 날이면 해어지는 아쉬움을 달랠기도 하였다.

네째날 11월 4일

70여 명이 참석하여 8시부터 시작한 예배는 강봉숙(국제사무 73) 사회자의 진행으로 이은영(중문 86) 동창 기도, 김경숙(생활미술 79) 동창의 찬양인도, 안상엽 목사의 기도로 모두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을 가진 후 2013년 10월 24일에 워싱тон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글 조수현(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장)



부산지회 '송년의 밤' 행사

후원금 1천만원 총동창회에 전달

구 lập 4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부산지회(회장/ 하은숙, 동양 69) 송년의 밤 행사는 매우 특별했다. 총동창회 조종남 회장을 비롯하여 위성숙 지역부장, 유영선 홍보부장, 김효신 총무 등이 참석하여 지회 동창들과 귀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진 이번 송년회에서 조종남 회장은 부산지회 동창들이 정성껏 모은 모교 후원금 1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해마다 코모도 호텔(회장/ 이영숙, 약학 57)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송년의 밤 행사는 하은숙 지회장과 임원진이 지회가 정성껏 준비한 3부 행사로 나누어 약 세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1부 기념식과 2부 뷔페 만찬 후 열린 3부의 퀴즈게임, 팀별 노래자랑, 율동 및 마술 시범 등의 흥겨운 시간을 마음껏 즐긴 부산지회 동창들은 새해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선후배 간의 우의를 다졌다.





이화문인 산문 랠레이

새가 되었네

허승실

불문64

수필가(본명 허윤정)

내몽골우란호티에서 태어나

8.15 해방뒤에 고국으로 오다.

한국문인협회

아대문인회 회원

수필집 '꽃은 흔들리며 사랑한다'

E-mail : soong411@hanmail.net

온

기가 채 식지도 않은 유골 분을 한 움큼 돌
틈에 내려놓으며, 뜨거운 눈물로 다정하던 친구
와 영영 작별을 고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돌
틈에 스며들어 자연으로 돌아갔다. 작은 돌 밑으
로 사라진 그녀의 흔적을 눈으로 더듬으며 생명
의 덧없음을 절실히 느꼈다. 우산을 제치고 쏟아
져 내리는 빗줄기를 올려다보았다. 하늘도 침울
하게 젖어 있었다. 치열했던 삶의 속박과 지루한
병고에서 벗어나 그녀는 자유로워졌을까?

2008년 7월 3일, 사랑하는 이를 빗속에 보내고
땅에 남은 사람들은 저항도, 거부도 못하고 시간
이 이끄는 대로 자기 길들을 갔다. 죽음의 길에
서처럼 삶의 길에서도 인간은 그저 무력하기만
하다.

폐섬유증으로 숨 한 번 시원하게 쉬기를 소원
하던 그녀가 가쁜 숨을 멈추고 하늘나라로 간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친구 몇이 그녀가 잠든 곤
지암의 소망동산을 찾았다. 숲속 기도원 건물 앞
에 세워진 조그만 탑 주위로 잔돌을 채워 놓은
곳에 그녀가 잠들어 있다. 그곳에 고인의 유골을
뿌린 가족들은 사랑하던 사람의 유택이라 여겨
각종 꽃바구니를 갖다놓았다. 우리 일행도 그녀
를 떠나보냈던 작은 탑 앞에 소담스런 꽃바구니
를 놓고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딸이 드디어 아기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먼저 전했다. 딸을 시집보낸 뒤 몇 년이

나 애타게 기다리던 아기였는데……. 그녀가 아기 를 보내 준 것은 아닐까? 그녀의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엄마 친구들도 한마음으로 기뻐했다. 어느 친구는 웰트바느질로 태어날 아기의 이불과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고, 순산할 때까지 몸조심하라며 엄마처럼 시시콜콜 잔소리들도 늘어놓았다. 임덧 이 심해서 딸이 함께 오지 못했으니 서운해 하지 말라는 위로까지 하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텁 주위에 둘러서서 그녀에게 소상히 들려주었다.

7월 초인데도 더위로 숨이 턱턱 막히는 날이었다. 우리 일행은 소망동산에서 그녀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숲속 정자로 옮겨 앉아 준비해 간 과일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새 한 마리가 정자 앞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입에 커다란 벌레 같은 것을 물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도 신기하여 사진 을 찍으면서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날아가지 않고 말뚱말뚱 우리만 바라본다. 가까이 가보았더니 입에 문 것은 곤충이 아니라 하얀 꽃잎이었다. 소문 난 재담가이던 그녀가 꽃잎을 입에 물고 우리를 찾아와 앉아있다는 느낌이 들자 고압선에 감전이라 도 된 듯 온몸이 찌르르했다.

그녀는 육신의 숨이 멈추는 순간 영혼의 창을 열고 새가 되어 천상으로 날아올랐는가. 옆에 끼고 살면서도 마음껏 사랑해 주지 못했던 가족을 이 땅에 남겨둔 채 저 하늘에서 너울너울 날고 있는 그녀

를 그려보았다. 그녀의 날개 짓은 가족의 행복을 간절히 비는 기도인가. “바람이 소리 없이 이는데 / 이 하늘 저 하늘의 / 순수균형을 / 그토록 간신히 지탱하는 새 한 마리” 천상병의 「새」라는 시가 떠올랐다.

코앞의 일에 길들여진 탁한 눈으로는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새가 되어 날아와 앉은 그녀를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다. 형상 안에 감추어진 영의 모습을 세속의 눈으로 어찌 알아볼 수 있으랴. 잠시 외도를 하듯 안식도 평화도 누리지 못하고 안달복달하다가 떠나야 하는 짧은 삶인 것을, 언젠가는 다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해후를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려 왔는가. 더위로 숲속은 조는 듯 고요한데 새는 우리 곁에서 미동도 없이, 환상인 듯 꿈결 같은 조우의 무대였다.

어느 모임에서나 좌중을 웃겨서 ‘인선이가 빠진 모임은 양꼬 없는 꼬뻬’ 이라는 별명이 붙어 다니던 친구였다. 까마득하게 잊힌 학창시절의 추억도 그녀의 입을 빌리면 묵은 일기장을 펼친 듯 생생하게 되살려 주던 재담가였다. 그러하던 그녀가 이야기 대신 마른 꽃잎을 가득 물고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기만 한다. 왜 하필이면 새가 좋아하는 벌레가 아닌 꽃잎일까? 청청하던 풀도 마르고 영화롭던 꽃도 시들어 버린다는 생의 무상함을 일깨워 주려고 꽃잎을 물었을까? 말을 할 수도, 노래를 부를 수도 없지만 귀는 쭉긋 열어 놓아, 우리들이 나누는 이

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는 것만 같다.

이승과 저승을 넘어 탈 시공의 신비로운 공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다섯 명이 한 장소에서 함께 보고 느꼈으니 분명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었다. 인간의 예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연출이었다. “아무리 사유해 보아도 밝혀지지 않으나 감성으로 만나면 분명하다. 이어지고 이어진 끈 같아라.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없지만 무물로 되돌아

오는구나. 이를 일러 모습이 없는 것의 모습이라 하고 동작이 없는 것의 동작을 일러 황홀이라고 한다.” 는 노자의 글(其上不皦 其下不昧 繩繩兮不可名 復歸於無物 是謂無狀之狀 無象之象 是謂恍惚 기상 불교 기하 불매 승승해 불가명 복귀어무물 시위무상지상 무상지상 시위황홀)이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전개되었다. 참으로 황홀하지 않은가.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잃고 무더위도 잊었다. 참새보다도 작은 예쁜 새가 된 그녀를 소망동산에서 만난 친구들의 마음은 반갑고도 슬프고, 경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희미하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1992년에 불문과 동창 열여섯 명이 유럽을 여행할 때였다. 50고개를 갓 넘긴 우리들은 자유와 풍요로움을 한껏 누릴 수 있는 황금기였다. 프랑스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인선이는 안성맞춤으로 여행 중에도 과대표 역할을 톡톡히 했다. 현지 가이드 대신 그녀가 우리의 안내를 맡아, 곳곳의 별미들을 골고루 맛보게

해주어 미식가의 호사를 누렸다. 단체 여행에서 놓치기 쉬운 볼거리도 요모조모 쟁겨, 다채로운 여행수첩을 만들 수 있었다. 그녀의 주선으로 파리에서 스페인풍의 레스토랑을 빌려 전속 악사들의 연주에 맞춰 밤이 새도록 춤추던 일은 다시는 누려볼 수 없는 흥겨운 추억이다. 재치와 추진력이 뛰어난 인선이의 활약으로 호사스럽고 흥미로운 여행을 만끽했다.

뮌헨의 백화점에서 쌍둥이 칼을 사느라 일행과 뒤쳐진 친구가 있었다. 백화점 출입구 네 곳은 어슷비슷하고, 우리를 태운 버스는 백화점 앞에 주차할 수 없으므로 계속 빙빙 돌아야 했다. 우리들은 버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친구 하나를 국제 미아로 만드는 줄 알고 가슴을 졸였다. 인선이가 찾아나서 드디어 그 친구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모두들 얼싸안으며 올었다. 길을 잃고 한 시간이나 헤매면서 열이 다 빠졌을 그 친구는 올다 말고 100불을 벌금이라며 내놓아 올던 우리들은 모두 배꼽을 잡았다. 여행 중에 모임 시간에 늦으면 5 불씩 벌금을 내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보름 동안 여행하면서 좌충우돌 웃고 올던 추억에 잠겨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 새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빈자리가 더 아쉽고 듣고 싶은 이야기, 묻고 싶은 이야기가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그녀는 날 아갔다. 입에 물고 왔던 하얀 꽃들이 피어 있는 언덕으로 갔을까?

2012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

제 11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2012년 11월 1일부터 3박4일간 캐나다 밴쿠버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창들의 친목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린 이번 총회는 밴쿠버지회(회장 강유순/약학 69)에서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총동창회 조종남 회장을 비롯하여 박유나 부회장, 유영선 홍보부장 등이 참석하여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독려하였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개회에 앞서 총동창회가 마련한 지회 깃발을 조종남 회장과 강유순 지회장이 높이 들고 함께 입장하는 의식을 마련하여 참석한 해외 동창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향후 총회 개최지로 2013년-워싱턴 DC, 2014년-샌프란시스코, 2015년-아틀란타, 2016년- 휴斯顿, 2017년-뉴욕으로 결정되었고 이화국제재단 이사회는 북미주 동창들에게 1년에 한 사람이 \$100 이상 5년 동안 기부를 하게 되면 이화여대 130주년에는 1백만 달러의 기금이 형성되어 이자만으로도 모교를 도울 수 있다고 호소하여 참석 동창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총동창회는 2013년 워싱턴에서 개최하게 될 제 12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도 성대한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34P)





올해의 이화인 및 후원이사 오찬

2012년 10월 23일 학교법인 이화학당 행정동에서 '이사장 초청 올해의 이화인 및 후원이사 오찬' 행사가 있었다. 이 날 행사는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있는 후원이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장명수 이사장께서 주최한 것으로 모교 김선욱 총장, 조종남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총동창회 임원 및 후원이사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화가족 성탄예배', 재학생들에게 떡 기증
구립 6일 오후 3시 모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가족 성탄예배'에서는 참석한 총동창회 임원들이 함께 참석한 재학생들에게 일일이 떡을 나누어주는 봉사를 하여 훈훈한 성탄예배가 되었다. 선후배 동창들

이 함께 자리하여 지나가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기도 시간을 가진 뜻 깊은 행사였다.

정기임원회

2012년 10월 11일 이화삼성교육문화회관 8층 총동창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임원회에서는 제 8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 실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2012년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과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더불어 11월 26일에 개최할 '이화인의 밤' 행사 논의도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11월 8일 정기임원회에서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화인의 밤' 행사 전반에 관해 토의 검토를 하였다. 12월 13일 정기임원회는 '이화인의 밤' 행사 평가가 있었으며 '부산지회' 방문 보고가 있었다.

선교부소식

총동창회 선교부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다락방에 모여 모교와 동창회, 동창 선교사,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다. 다음은 2012년 기도모임에 함께한 선교사들이다.(12월 초 현재)



- | | | | |
|------------|--|--------|--|
| 1월3일 | 유병국(간호75), 김성실(간호75) | 7월10일 | 이효정(육아75), 이현숙(사학74), 김영미(전자계산90) |
| 1월10일 | 김성실(간호75) | 7월17일 | 이효정(육아75), 유덕희(간호96) 김리디아(사생89), 흥수정(중문93) 유병국(간호75) |
| 1월17일 | 김성실(간호75), 이아리엘(이인숙)(수학79), 유병국(간호75) | 7월24일 | 이효정(육아75), 이현숙(사학74), 정보영(사회85), 안미숙(철학86), 하윤희(경영90), 김경옥(국문84), 김혜경(불문82) |
| 1월31일~2월1일 | 수련회 서은주(불문85) | 7월31일 | 이효정(육아75), 김리디아(사생89) 김영인(제약97, 아제르바이잔) 송정옥(교공69, 북방지역) |
| 2월14일 | 송정옥(교공69) | 8월7일 | 이효정(육아75) |
| 2월21일 | 김수지(간호60), 유병국(간호75) | 8월14일 | 이효정(육아75), 유병국(간호75) 신미혜(불문85, 과테말라) |
| 3월6일 | 유병국(간호75) | 8월21일 | 이효정(육아75), 이철희(간호88, 캄보디아) |
| 3월20일 | 송정옥(교공69) | 8월28일 | 한현주(피아노90) |
| 4월10일 | 서은주(불문85) | 9월4일 | 이철희(간호88), 이효정(육아75) 유덕희(간호96, 터키), 김유선(목회상담04, 캄보디아) 채란(캄보디아) |
| 4월17일 | 서은주(불문85), 이형란(행정88) | 9월11일 | 한현주(피아노90) |
| 5월15일 | 오은주(영문74), 박양미(제약82) | 9월18일 | 한현주(피아노90), 이효정(육아75) |
| 5월29일 | 서은주(불문85) | 10월9일 | 서은주(불문85) |
| 6월12일 | 송용희(유아교육86) | 10월23일 | 유병국(간호75) |
| 6월12일 | 송용희(유교86) | 11월13일 | 진은현(특교90, 케냐) 오은주(영문74, 필리핀) |
| 6월19일 | 변희예(교공83), 신경희(특교84), 조미숙(국문93) | 11월27일 | 유병국(간호75), 김은경(성악04) |
| 6월26일 | 단기선교학생환송예배 염승혜(서양96), 흥수정(중문93), 천사랑(장식86), 김금사(생미75), 이효정(육아75), 유병국(간호75), 문신희(동양83), 민명홍(화학71), 박혜원(영문79), 최하나(영문01), 안형숙(정외86), 이재진(영문78), 송용희(유교86), 김미나(영교85), 왕승희(피아노75), 김미나(영교85), 유덕희(간호96) | | |
| 7월3일 | 이효정(육아75), 유덕희(간호96) 유병국(간호75), 김영미(전자계산90) | | |

간호과학대학

회장 김진향(간호 73)

단합대회 및 김수지 명예교수 출판기념회 개최

2012년 10월 13일 이화 간호대학 단합대회에 동창 21과 미국 남가주지부 동창회장이 참석하여 청평사를 둘러보고 남이섬 트래킹을 하며 즐거운 가을 정취를 함께 나누었다. 한편 11월 3일에는 한국 최초의 간호학 박사이고 모교 간호대학장을 역임한 김수지 교수의 간호교육 45주년 및 출판을 기념하는 모임이 이화여대 진관 휴게실에서 있었다. 이 날 김수지 교수의 간호교육 45주년 및 출판기념회를 축하하기 위해 김수지 교수의 스승이신 홍근표 교수(기독간호대학 명예학장), 이호영 교수(전 아주대 총장)을 비롯하여 신경림 교수(제19대 국회의원)와 미국 Case Western Reserve 대학의 Joyce Fitzparic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제자 및 관계자 70여명이 모였다. 김수지 교수는 현재 아프리카 최빈국 중의 하나인 말라위에서 대양간호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현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과학대학

회장 이양준(정외 70)

‘이화인의 나눔가게’ 바자회에서 1일 봉사

2012년 10월 10일 모교 대외협력처가 주관하는 ‘이화인의 나눔가게’ 바자회에서 1일 봉사를 하였다. 정치외교학과, 언론홍보영상학부, 사회학과, 심리학과, 문현정보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8개 학과의 동창들이 기증한 애장품과 협찬 물품들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애플과자 무료제공, 보물 찾기, 사과대 학생 특별 할인 등과 같은 이벤트와 더불어 일일 봉사활동 체험이 이뤄졌다.

이화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총판매금은 1,271,800원이며 수익금 전액은 다양한 이화의 나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24일 남페(구 방비원)에서 열린 사회과학대학 신임 박동숙 학장(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의 초청 오찬에 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생활환경대학

회장 임정희(가관 79)

'2012 아령인의 빛나는 밤' 행사 성황리에 개최

이화가정학 83주년과 아령회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2012년 11월 23일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1952년 최초의 동창회로 탄생한 아령회가 올해로 6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가 기획되었다.

이자리에는 이배용 전 총장과 김종규 문화유산국 민신탁 이사장 등 각 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450 여 명이 넘는 동창과 은사가 함께 추억의 사진, 원로 교수와의 인터뷰 동영상을 지켜보며 가슴 뭉클한 '아령인의 밤' 행사를 시작하였다.

김병찬 방송인의 사회로 역대 회장과 각 계에서 활동하는 동창들 소개가 있었으며 김영석 디자이너 한복 맞춤 후원으로 동창들이 모델로 런웨이에

오른 한복 패션쇼는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댄스 동호회의 탱고와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 속에서 아령인의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약학대학

회장 정준순(약학 72)

졸업 50주년 동창들 '동창회 발전기금' 전달

제49차 정기총회를 2012년 10월 22일 잠실 롯데 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하였다.

동창 285명과 김구 대한약사회장, 민병립 서울시 약사회장, 서울대, 중대, 숙명대, 덕성여대 동창회장, 한국여약사 회장 등 내빈이 참석하였고 총 4부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1부 기념식에는 정준순 동창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경립 약대학장의 격려사, 2012년 동창회에 기여한 동창들에게 기념패를 주는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전 회장(권성숙 약21) 감사기념품 증정,





공로패(장현숙 약11), 감사패(김덕희 약12, 김동선 약12), 축하패(위성숙 약24, 서정숙 약25, 박은주 제18), 올해의 이화인 축하패(김영주 약33, 양현옥 제12)가 전달되었다.

졸업 50주년 재상봉(약13) 축하식에서 13회 동창들이 ‘동창회발전기금’ 700만원을 전달하였다.

13회 김순영 대표의 인사말, 가야금 연주(민충기), 13회 일동의 축하 노래(희망의속삭임)가 있었으며 졸업 50주년을 축하하는 약대합창단의 ‘사랑은 영원하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답가가 이어졌다.

오찬 후 2부 총회를 열고 경과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등 동창회 1년을 결산하였다. 제3부에는 합창제가 열렸고 특별공연으로 12회 동창들이 준비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으로 총회장은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하였다.

제4부는 행운권 추첨은 임원단과 동창들이 후원한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많은 동창들이 행운을 가졌다.

자연과학대학

회장 변희숙 (생명 73)

골프대회 및 2012 가을 야유회 가져

2012년 9월3일 정기임원회의에서 신구임원 인사, 전 동창 회장인 이숙자(수학) 동창에게 공로패

를 증정하였다. 9월 24일 골프대회가 양지 cc에서 개최되어 24명이 참석하여 생명과학과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개인별 수상자는 메달리스트: 김영두 (물리), 개인우승: 김소희(생명), 장타상: 채정화(생명), 근접상: 장진숙(생명)동창이다.

10월 15일에는 자연대학 가을 야유회가 벽초지 수목원에서 열려 156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였다. 수목원에 도착하여 국화 전시회를 돌아보고 점심 후에는 오락회를 진행 하여, 빙빙 돌며 짹 찾기, 연령 대별 훌라후프 돌리기, OX-게임, 단체 줄넘기 등을 통해 유쾌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높은 하늘과 따사로운 날씨는 모든 동창에 건강과 행복감을 높여 주었다. 특히 원로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의로 무사히 하루 행사를 마쳤다.

체육대학

회장 장혜란(체육 74)

재학생과 동창회가 함께 하는 ‘건미제’ 개최를 위한 임원회

2012년 11월 30일 이화여대 체육관 홀 2에서 동창회 행사 최초로 재학생들과 졸업 동창들이 함께 하는 ‘건미제’를 개최하기 위한 임원회를 열고 행사 전반을 검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행사는 동창, 재학생이 하나 되는 의미있는 체육인 행사로 ‘건미제’ 최초의 행

과·학부 소식

가나다순으로 계재



교육학과

회장 정미경(79)

이화교육네트워크 정기 모임 활발

이화(학부, 대학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동창 및 재학생 모임인 이화교육네트워크 정기모임에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여 선후배간의 친목 도모 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2012년 9월 모임은 이연숙(교육57) 동창의 ‘세상 돌아보기’, 10월에는 황수경(대학원교육학과91/사학88) 동창의 ‘명상과 마음 치유’, 11월은

김진숙(교육67) 동창의 ‘미혼모와 입양’을 주제로 강좌를 개최하였다. 정기 모임은 2월, 8월을 제외하고 매달 첫 토요일 교내에서 열린다.

경영학과

회장 이봉학(81)

선후배 우의 다진 2012 정기총회 및 송년 모임

2012년 11월 17일 소공동 롯데쇼핑 본점 에비뉴엘 'Star china'에서 '2012년 경영학과 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그동안 경영학과는 매년 6월에 '홈커밍데이' 와 '동창의 밤' 행사를 함께 진행해 왔으나 이를 분리하여 6월엔 홈커밍데이 행사를, 연말엔 총동창회 및 송년모임을 별도로 가지기로 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졸업한 선, 후배를 중심으로 한 총동창회를 새롭게 출발시킴으로써 동창들이 더욱 화합하고 우애를 다질 수 있는 뜻 깊고 즐거운 자리였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이봉학 동창회장의 환영인사



를 시작으로 손향아 부회장의 동창회 임원진 및 내빈 소개, 서지희 상무의 동창회 경과 및 재무보고, 오은경 부회장의 안건토의 및 공지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행사는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선배님들의 훈훈한 덕담을 듣고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이 자리리를 오가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으로 김인환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3부 친목의 시간에는 추억의 사진콘테스트, 동창들의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회원들이 직접 기증한 경품 추첨 등이 유쾌하게 이어졌다. 앞으로 더욱 많은 동창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멋진 동창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문과

회장 이정화 (74)

희망찬 새해 맞이 2012 송년 모임 및 정기총회

2012년 11월 15일 노보텔 앤버서더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송년 모임

을 겸한 것으로 1부에서는 이정화 회장의 인사가 있었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기획한 박지원 동창(25기)이 최근 출판계 동향 및 이슈를 전하였다.

2부에서는 선후배 간의 돈독한 우정을 다지며 경품 추첨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또 한 내년에 있을 독어독문학과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논의와 새해를 희망차게 보내기 바라는 훈훈한 덕담으로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문화정보학과

회장 김이경(77)

'이화사서포럼'에서 동창회 카페 개설

문정과 출신 전문 사서들의 네트워크 '이화사서포럼(Ewha Librarian Forum : ELF)' 임원들이 2012년 11월 6일 한우 예성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는 홍정순 회장, 여위숙 부회장, 각 분과 위원과 총무 등 10명이 모였다. 회의 안건으로 매년 총회 개최를 4월 세 번째 목요일로 확정하였고, 동창회 카페(<http://cafe.daum.net/ewhaelf>)를 개설하였다.

이화사서포럼은 2012년 7월 4일 발족식을 갖고 전문적 동창 클럽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8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ELF는 전문 분야 및 관종별 분과 모임을 활성화해 정보 공유 및 자문을 제공하고, 각종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해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교 출신 사서들의





예교수, 그리고 동창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동창, 교수, 명예교수들의 장학금 기탁이 이루어지는 등 과의 발전을 위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를 통해 동창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더 큰 관심과 애정으로 과를 응원하고 후원하기로 다짐하였다.

언론홍보영상학부

회장 박화숙(74)

임원진, 안광식 명예 교수 초청 오찬 참석

2012년 10월 9일 안광식 명예교수의 초청 오찬에 동창회 회장단이 참석하여 스승의 격려를 받았다. 이대 후문 앞 일식 '화'에서 이루어진 이날 모임에는 김동철, 윤희중 명예 교수가 함께 하였으며 이경순(67), 김미령(69), 문은희(72) 등 전임 동창회장들과 박화숙 회장, 안계상(74), 우연옥(75)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광식 명예교수는 동창들의 수고에 덕담을 아끼지 않았고 김동철, 윤희중 명예교수는

인생 선배로서의 금언과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으로 사제지간의 정을 나누었다.

조소과

회장 심인자(74)

이화조각회 정기전 및 송년행사

이화조각회 정기전인 'Bloom+ing' – '이화, 하나로 피어나다' 전시회가 2012년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인사아트센터 5전시실에서 열렸다.

전, 현직 교수들과 이화조각회 회원,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인자(74)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나진숙(84) 동창이 갤러리관장으로 재직 중인 유중재단에서 후원한 혼악연주팀의 연주와 이재순(02) 동창의 퍼포먼스,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순서가 이어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별히 이화조각회 회원들의 작품과 더불어 동창회 전 동창들이 자발적으로 출품한 1호 크기의 소품을 함께 설치하는 'one project'를 추진하여 판매하였으며, 판매 기금을 동창회사업 중 하나인 장학기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해외 지회소식

가나다순으로 개재



뉴욕지회

회장 박문순(사학 66)

제 48주년대 뉴욕지구 동창회 연례만찬개최

2012년 10월 26일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안미상 이사장의 기도, 박문순 회장의 감사인사. 서희정 장학위원장을 대신한 최성남 장학위원의 장학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지난 2년 동안 동창회를 위해 봉사한 유덕향 전 회장에게 공로패가 증정되었다. 안미상 이사장의 해외동창 기금 안내 후 박영미 목사의 기도로 만찬과 함께 Ewha photo slide show가 시작되어 오랜만에 교정의 발전된 새로운 모습에 동창들 모두 자긍심을 느꼈다. 김기령 총무와 송미숙 동창의 탱고로 즐거운 여흥이 시작되어 김성혜, 모명숙, 박영숙, 송지예, 조문경 등 86년 졸업 동창들이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열정적인 댄스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무슨 일이든 열심인 우리 동창들 모두 강남스타일 말춤 배우기 시간도 마련되어 선후배가 하나 되어 열심히 배웠다.

남가주지회

회장 김정순(간호 75)

제 10회 총장배 골프대회 및 하반기 이사회 개최

2008년에 이어 2012년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동창회보 경연대회'에서 남가주동창회보가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금을 받은 것을 계기로 더욱 알찬 회보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선교부(회장 조남화)가 9월 26일 캐나다의 빅토리아 섬에서 인디안 원주민 선교를 하는 송유순(무용 85) 선교사의 사역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후원금을 전하였다.

10월 1일에는 California Country Club에서 제 10회 총장배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골프대회는 동창 자녀 장학기금을 위해 2003년부터 시작, 매년 하고 있다. 한편 10월 27일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하반기 이사회(이사장 박화자)가 열려 사업, 회계보고가 있었고 2013년 사업계획의 한 행사로 이화여대 발레단을 초청, 메시아 공연을 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했다.



라스베가스지회

회장 권영애(의학 64)

축하할 일로 가득했던 2012년

2012년 지회에서는 축하할 좋은 일들이 많았다. 11월 모임에서는 2012년 2월에 결혼을 하여 축하를 받은 바 있는 회원 중 가장 막내인 유지숙 동창의 아기 출산을 위해 회원들이 모여 베이비샤워를 하며 다시 한번 축하하였다.

신선하고 행복한 에너지를 회원 모두가 함께 공유한 하루였다.

연배가 높은 동창들 위주로 이루어진 지회이지만 늘 여행도 많이 다니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원로 동창들로 인해 젊은 동창들이 삶의 지혜를 많이 배우며 따르고 있다.

비록 회원 수는 적지만 권영애 회장을 중심으로 매달 모임을 가지며 늘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이롭다운 모임을 하고 있다.

런던지회

회장 문현수(체육 70)

헬서 죄튼 마을 제인 오스틴 하우스 방문

2012년 9월 1일 영국의 대표적인 여류작가인 제인 오스틴(1775-1817)이 살았던 헬서에 있는 죄튼(Chawton)마을의 제인 오스틴 하우스를 방문하였다. 이날 동창들이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서로의 친목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보람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송정원 동창의 부군인 추규호 주영 대사도 참석하였으며 손선희(영문 62), 문현수(체육 70), 송정원(영문 81), 최문영(미술 85), 문혜정(87), 이영은(가정 92), 정지은(국악 94), 홍시내(신방 97), 임영희(성악 02) 동창 등이 함께 했다.

멜버른지회

회장 안수산(영문 84)

축하모임 결한 2012 송년모임

2012년 11월 30일 정은재(실내디자인 01) 동창 자



택에서 결혼 축하 모임을 겸한 2012 송년회를 열어 오랜만에 즐거운 모임을 가졌다. 이날 선후배들은 아직 신혼인 정동창을 축하하며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소식들도 함께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 날 2013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진으로 회장에 안수산, 부회장에 박성혜(기독 95), 총무에 박혜진(독문 97) 동창 등을 선출하였고 그동안

봉사를 아끼지 않은 양수경(경영 91) 전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북가주지회

회장 조미정(정외 86)

2012년 총회 이후 다양했던 정기 모임

2012년 4월 7일 니조캐슬에서 동창 35명이 모여 제 23대 회장단의 새임기가 시작된 이후 5월은 산타클라라에서 40여 명이 모여 이태업 한의사의 '갱년기 건강관리' 강의를 들었다. 6월에는 샌리엔드로 한대감에서 30여명의 동창들이 모였고 7월에는 30여명의 동창들이 함께 우드사이드에 위치한 필로리가든을 답사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8월은 바자회 및 친목 도모의 모임으로 쿠퍼티노의 디안자 클럽하우스에서 동창들이 가져온 헌 물건, 새 물건들로 바자회를 한 뒤 라인댄스와 노래방을 열어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



다. 9월은 오클랜드의 수라 한식당에서 35명이 참석하여 밴쿠버 총회 안내와 신청서를 받은 뒤 김경연 강사의 재정세미나 강의를 들었다. 10월은 광주 동창 자택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11월 1일 14명의 동창들이 밴쿠버에서 열리는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에 참석하여 '변사도의 생일잔치'를 공연하여 1등상을 차지하였다.

11월 모임 후 12월 1일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50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지나간 한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12월 정기모임 및 송년파티 모임을 가졌다.

세인트루이스지회

회장 양혜자(교심 74)

연 4회 정기 모임 이외 매월 '진선미' 모임 가져

97년 10월에 저희가 설립되어 연 4회(3월, 5월, 10월, 12월) 정기 모임이 있으며 12월 모임은 부부 동반으로 진행하고 있다. 33명의 등록 회원이 있고 매월 '진선미 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에는 세인트루이스 Opera에서 한국의 작곡가 진은숙씨가 작곡한 'Alice & Wonder Land'의 세계 초연 공연이 화려하게 있었다. 이 날 최경선 동창의 부군 김승희 박사의 수고로 동창들이 많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한편 동창 친목과 독서 모임에서는 최근 이조의 마지막 왕가의 며느리 중 한 분인 87세 윤후섭 씨

의 저서인 '맹현아씨(고종황제의 사촌)'를 탐독하였고 한인회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불우이웃돕기, 평화의집 돋기, International Child Evangelism(세계아동선교-최혜영 동창이 선교사로 있음) 현금 등 사회의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모교 총동창회 회비, 동창회 선교부 현금, 선배라면 기금 등을 반드시 보내고 있으며 2000년도에 시작한 세인트루이스지회 장학기금이 이화국제재단에 올해로 \$9,000 넘게 있다.

2012년에도 국제재단에 장학기금 \$1,000 보냈으며 '이화 해외 동창기금' 모금에도 여러 동창들이 참여하였다.

크지 않은 저희지만 항상 저희 모임에 감사하며 서로가 작은 정성이 모아지는 것에 감탄하고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시카고지회

회장 송복진(영문 73)

취미활동 위주로 소그룹 활성화할 계획

2012년 9월 15일 70년 이후 졸업 동창 20여 명이 문화회관에 모여 즐거운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 인원의 75%가 처음 참석한 동창들로 저희는 앞으로 취미활동을 위주로 한 소그룹을 활성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10월 6일에는 80세 이상의 원로 동창들께 점심을 대접했고 이어 함께 페어몽트 양로원을 방문하여



이경환 동창께 선물을 드렸다. 10월 7일 50여명이 모여 데스플레인 강가에서 ‘추억의 가을소풍’을 가졌다.

바베큐 점심, 게임, ‘나름 가수다’ 장기자랑, 보물찾기를 하며 마음껏 가을을 만끽하였고 27일에는 문화회관에서 가을 정기 임원이사회를 열었다.

애틀란타지회

회장 조성숙(간호 64)

2015 아틀란타 개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기대

2012년 11월 1일 벤쿠버에서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뉴욕의 토네도로 인하여 뉴욕 등 많은 동창들의 참석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인원이 늦게라도 참석하여 탈렌트 쇼까지 보여 주어 다시한번 ‘이화의 힘’에 놀라고 감동하였다.

지회의 2012년 행사 중 가장 잊지 못할 행사는 5월 성가곡 발표 당시 저희 학창단 참여에 도움이

큰 발표자인 정소영(영문 62) 동창의 은혜 받은 가사와 부군의 곡의 부침이었으며 10월 이대 총장배 골프대회에서 보인 정제니(영문 64) 회장의 리더십도 감탄하게 된다.

2015년에 아틀란타에서 열리게 될 북미주지회 연합회에 많은 선후배 동창들이 참석하여 총회를 빛내길 기대한다.

오타와지회

회장 이연숙(간호 72입)

이화인 위상 드높인 동창들 축하하며 기쁨 나눠

2012년 9월 28일 차정자 동창 자택에서 한가위를 맞아 풍성한 음식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 메달을 받은 엄경자 동창과 생일을 맞은 이연숙 동창을 축하하며 즐거운 모임을 가졌다.

11월 10일에는 박진희 동창의 집들이로 깊어 가는 가을 밤을 만끽하기도 하였다.



2013년 오타와 한인회장으로 차정자(수학 63) 동창이 선출되었고 엄경자(약학 63) 동창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주년을 맞아 지역 사회 공헌자에게 수여되는 기념 메달을 받아 이화인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전영남(약학 57) 동창자녀인 샌드라 오(영화 배우)도 총독이 수여하는 기념 메달을 받아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자카르타 지회

회장 민경례(불문 76)

긴휴가 후 가진 정기 동창회

8월 30일 한양가든에서 총 15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모임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최대 공휴일인 르바란과 긴 여름 휴가를 보내고 3개월 만에 동창들이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특히 이날은 사기숙(피아노 75)동창의 정성이 담긴 결혼식 답례 떡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함께 했다.

10월 25일 토박에서 정기 동창회를 열어 총 13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이 날 부고 소식이 많아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던 동창들 모두 함께 안타까워했고, 상주인 정진경(건교 95), 조수진(신방 91), 김미송(약학 82) 동창께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한 인도네시아 한인미협

이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하는 전시회에 이은수(동양화 78) 협회장, 임수경(동양화 90) 동창이 참여하였다.

토론토 지회

회장 문아연(사회.72)

180여 명 참석한 재미있고 아름다운 송년회

'이화여자대학교 송년 모임 Nov. 18. 5:00pm at Riviera Parque' 토론토 이화인들의 연말 파티 광고문안이다. 그날의 테마는 '모자 이야기' 였다.

이 날 180여 명의 이화인들이 모두 한결같이 모자를 쓰고 파티장에 모였다.

손주가 만들어 준 고깔모자, 3대에 걸쳐 내려온 조바위, 부모님께서 임종전 사주신 사연있는 모자, 마이웨어레이디의 히긴스와 라이자의 모자, 딸이 손수 물감을 들여가며 만들어준 모자, 윌리엄왕자의 쳐 케이티의 모자, 족두리와 사모관대, 찰리 채프린 분장의 모자, 귀여운 바니분장의 모자, 싼타



의 모자등…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Funny, Cute, Unique, Grace하고, Story 있는 모자들이 등장하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처음 이 행사를 계획할 때의 염려(보통 한국 여자들은 모자를 즐겨 쓰지 않으리라는)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많은 동창들이 적극적으로 준비된 참여를 하였다.

이기선, 김현순, 김지인, 유인희 동창의 팔순 맞

이 깜짝 축하연에서 손녀 같은 후배 김지수(통계 02)동창이 직접 만든 3단 케이크를 놓고 모두 해피 버스데이를 부르며 축하하여 감동을 주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동창들의 높은 참여도에 비례하여 지역사회에서도 이화인의 봉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30대 회장으로 이순임(사학 88)동창이 선출되었다.

파리지회

회장 송미영(불문과 76)

유학온 재학생과 함께 송년회 개최

2012년 12월 1일 이현미 동문(정외 81)이 운영하는 한식당 '퀸스 다이닝'에서 2012년 재불 이화동문 송년회가 열렸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진 이번 송년회에서는 졸업생 뿐만 아니라 유학을 목적으로 프랑스에 온 재학생들까지 총 43명이 참석하여 전 세대를 아우



르는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필라델피아지회

회장 문광선(식영 76)

좋은 배움의 기회 갖는 정기모임

필라델피아 지회는 매달 첫번째 월요일에 정기모임을 하고 있다. 정기모임을 통해 무엇보다도 동창들 간의 친목과 우애를 도모하며 가능한 좋은 배움의 기회를 함께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골프와 그로 인한 상해' 강의와 봄을 맞아 꽃꽂이 강좌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또한 필라델피아 인근의 Nemours Mansion and Gardens을 방문하여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며, 9월에는 재정 전문가를 모시고 Social Security Benefit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사진 전문가의 '사진 잘 찍기'에 대해 배움의 시간도 가졌다.

12월에는 Zumba Class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

는 정기모임을 하였으며 취미 생활을 넘어 예술에 경지에 이른 이정선, 도경자 동창의 미술 전시회 등도 관람하였다.

홍콩지회

회장 정도경(사회복지 81)

이화여자대학교 전 문리대 학장 서광선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2012년 11월 8일 이화인의 자랑인 서광선 명예교수와 부인 함선영(영문 56) 전 이대 교수를 맞아 Pacific Club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서 교수께서는 홍콩의 제자들에게 '이화인으로서의 궁지와 책임감'이라는 요지로 특유의 유머 감각을 섞어 당부의 말과 함께 '쉬지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늘 감사하라'는 이화의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 날 참석 동창들은 홍콩 지역사회에서 이화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모교소식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으로 선정 최대 100억 원 지원받아

모교가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추진하는 '기초과학연구단(IBS연구단)'을 유치했다. IBS연구단은 세계 정상급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초빙해 기초과학 분야 창조적 지식과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2012년 10월 8일 발표된 결과에서 본교는 과학기술대학이 아닌 일반종합대학으로는 이례적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10년간 최대 100억 원의 파격적인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사업은 작년 5월부터 선정 경쟁이 시작되어 10대 1의 경쟁률 속에서 1차 연구단장 10명이 선정되었고, 2차 선정을 통해 본교 연구단을 이끌 가브리엘 애플리(Gabriele Aeppli) 교수가 7명의 세계적인 연구진과 함께 선정됐다.

모교에 자리하게 될 IBS 외부연구단은 영국왕립협회 석학회원이자 응집 물질·물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가브리엘 애플리 교수의 주도 하에 'Seoul Institute for Atomic Scale Science and Engineering(SIASSE)'를 설립해 합성·생물학과 기계공학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물질 분석 및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 IT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국제재단 이사회 참석 및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방문

김선옥 총장은 2012년 11월 2일~3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해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이사회에 참석하고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와 만남을 갖는 등 북미주지역 이화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힘썼다. 김 총장은 11월 3일 열린 '제43차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은 1970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미국 및 캐나다 이화 후원자와 북미주 지역 동창을 중심으로 기금 모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물관 '가을기획 테마전' 오픈

모교 박물관(관장 오진경)은 2012년 9월 12일 '2012년 가을 전시회' 개막식을 갖고, 특별기획전과 기획테마전을 오픈했다. 2013년 7월까지 이어지는 기획테마전으로는 '사계四季-조선의 춘하추동'과 '조선시대의 단장丹粧'이 선을 보였다.

구름 8일까지 성황리에 진행된 이번 특별기획전은 ‘한국 상차림의 예와 몇’, ‘미술, 식탁 위에 깃들다’의 두 개 테마로 구성되어 상차림에 나타난 미학을 살펴보고, 상차림 소재의 현대작품들이 전시됐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의 상차림이 재현되어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스웨덴 총장단 방문 및 벨기에 ‘킹스데이’ 행사

이화-유럽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2012년 11월 9일 스웨덴 과학·교육계 인사 23명이 모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스웨덴공학한림원(IVA)과 스웨덴고등교육국제협력재단(STINT), 한국연구재단(NRF)이 한국과 스웨덴의 상호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 ‘한국 방문 특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교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돌아보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우 총장을 비롯하여 최진호 대외부총장, 서현숙 의무부총장, 이공주 대학원장 등이 참여해 스웨덴 교육 연구 인사들과 교류 협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향후 이화와 스웨덴 간 연구 및 교육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11월 15일에는 모교 ECC극장에서 주한 벨기 에대사관이 주최하는 ‘벨기에 킹스데이(Belgium King's Day)’ 행사가 개최됐다.

모교는 벨기에 기업이자 세계적인 화학기업 솔베



이에 산학협력 파트너로서 함께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후원했다.

각종 고시·국가고시에서 이화인들 승승장구

모교 재학생들이 각종 고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전문직 분야 여풍(女風)을 주도하고 있다. 2012년 11월 21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54회 사법시험 제3차 시험 결과 모교 출신 39명이 최종합격했다. 이번 합격자 숫자는 전체합격자 대비 7.7%의 비중으로 모교는 역대 최고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사법고시의 여풍은 행정고시에서도 이어졌다. 11월 2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제56회 행정고시(5급 행정직 공채시험)’ 발표 결과 9명의 이화인이 최종합격했다.

한편 지난 47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28명의 이화인이 합격했다. 합격자 중 이혜수(화학 06) 동창은 여성 합격자 중 최고점을 받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35회 보험계
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 모교 자연대 수학 전공
강이슬(08), 나경아(08), 안소영(09), 장성은(07) 동
창이 최종 합격하였다.

유레카(EUREKA) 정보시스템 개통식 본격적인 가동 들어가

통합형 대학행정시스템인 유레카(EUREKA) 프
로젝트가 사업 시행 1년 10개월 만에 최종 완료되
어 2012년 10월 29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정보통신처는 이를 축하하는 자리로 11월 14일 LG
컨벤션홀에서 유레카 정보시스템 개통식을 개최
했다.

유레카(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
Education, Knowledge, Administration
System)는 업무 효율성의 향상과 이화구성원을 위
한 서비스 극대화,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유레카 통합행정시스템에는 자기주도
적 수강설계가 가능한 학생 수강포트폴리오 등의
학사 지원과 구매처리 프로세스의 단축 등의 행정
지원, 특히 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연구 및 산학행정
등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선진형 통합행
정시스템이다.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의 비전 아

래 추진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모교는 선도적인
대학 경영 및 IT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

이화 브랜드 이미지 강화한

2013학년도 입시 광고

모교 기획처에서 2013학년도 입시 광고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화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새로
운 입학생들에게 본교의 특장점을 소개하기 위한
이번 광고는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 '이화 레
지デン셜 칼리지', '과학 이화'의 세 가지 버전으로
제작됐다.

1편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는 배움을 세계와
나누는 '나눔의 글로벌'을 강조하여 대한민국 여
성 교육의 희망에서 세계 여성 교육의 희망으로 나
아가는 이화의 비전을 담았다.

2편 '이화 레지デン셜 칼리지'는 이화 RC를 '함께'
의 크기를 먼저 배우며 세계를 담는 큰 그릇으로 표
현해 이화 RC를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을
강조했다.

3편 '과학 이화'는 세계의 과학이 먼저 찾아오는
이화여자대학교라는 컨셉 아래 과학분야를 선도해
온 이화의 발자취와 과학 이화의 비전을 소개했다.

글. 모교기획처 홍보과



동창소식

졸업 연도순 게재

송창주(가정 62)

11월 17일 해이그 평화궁 앞에서 이준열사기념관이 주최한 잊지말자 을사늑약캠페인에서 송 동창은 로테르담 한인학교 학생 80명에게 107년 전 역사를 설명하고 ‘잊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있는 엘델바이스 꽃 배지를 배포하였다. 1905년 11월 17일은 을사늑약 강제체결일로이 동창은 해마다 이날 이 행사를 열고 있다.

이정자(기독 66)

시조시인인 이정자(사)한국시조문학진흥회 이사장이 고산 윤선도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새시 대문학사에서 제정한 제4회 고산윤선도문학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금년 초에 출간한 저서문학의 이해가 2012년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었다.

김경자(악학 68)

2012년 10월 9일부터 2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린 마니프서울국제아트페어에 참가하였다.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임페리얼 펠리스호텔 8층에서 ‘image: Nature's Rhythm 1206’로 Doors Art Fair 2012 개인전시를 가졌다.

김옥지(생미 68)

뉴욕에 거주하며 빛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김 동창의 3인전 전시회가 2012년 9월 8일부터 14일까지 Riverside Gallery에서 열렸다.

성기순(섬예 69)

수본민화 연구소 소장인 성 동창이 2012년 8월 3일부터 16일까지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의 멋과 열’이라는 주제로 문화생들의 제 5회 민화전시회를 열

었다.

최민숙(독문 71)

이대 독문과 교수인 최 동창은 2012년 10월 29일 한국연구재단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인문사회 기초학문 육성 10년 대표성과 인증식’에서 ‘인문사회 기초연구 우수성과 인증패’를 받았다. 최 동창의 연구과제 제목은 ‘자연과학 실험장으로서의 문학 – 18세기 말~19세기 초 유럽을 중심으로(2005)’이다.

박경임(식영 73)

총동창회 문화부장인 박 동창이 2012년 10월 19일~11월 9일까지 갤러리 현대 두가현에서 열린 ‘애호가들이 꾸미는 작은 전시회’라는 부제가 붙은 ‘사랑스런 우리 고미술’ 전시회에 소장하고 있던 고미술품들을 출품하였다.

황효석(조소 74)

2012년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인사동 갤러리아즈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오숙환(동양 75)

이대 조형대 동양학과 오숙환 학장이 2012년도 9월 대한민국 기독미술인상을 수상한 데 이어 11월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하였다.

장경해(피아노 75)

남가주지회 부회장인 장 동창이 나성서울코랄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나성서울코랄은 39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L.A의 합창단으로 2012년 10월 7일 제 68회 정기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장 동창은 올 겨울 주로 공연에 참여했다.

정귀인(무용 75)

구립 20일 부산대 10.16 기념관에서 정 동창이 이끄는 정귀인 무용단이 스승인 박의선 선생을 추모하는 ‘

동 창 소 식

'나는 춤이다'를 성황리에 공연하였다.

서경남(사학 76)

2012년 10월 11일 장학금 1,000만 원을 사학과 동창 기금으로 기탁하여 대외협력처에 기증하였다.

박경실(체육 78)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인 박동창은 창립 55주년을 맞아 2012년 10월 20일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16개 시, 도 지회 학원인 및 학원가족이 참여하는 전국 학원가족 氣 살리기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12월 4일 학원교육의 현 위기를 타개하고자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바람직한 학원교육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학원교육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최형선(생물 78)

한국 YWCA연합회 실행위원인 최동창이 저술한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저서가 2012년 제30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저술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신정순(국문 79)

현재 미국 시카고의 노스이스턴 대학 외국어학과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신동창이 그동안 미국 이민자녀들이 미국에서 겪는 갈등을 담은 책들을 발표해 왔다.

'착한 갱 아가씨'에 이어 발표한 이번 'Hello 도시락 편지(재미마주의 「학급문고」 제10권)'는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 아이 '별이'의 이야기이다.

이혜성(문헌정보 80)

2012년 10월 17일 육관사관학교 도서관 관장으로 취임했다. 이동창은 문정과를 졸업하고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대학 도서관, 교육사령부 자료정보처에서

근무했다.

박애란(조소 80)

2012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파란네모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이현혜(법학 80)

이대 총무처 부처장인 이동창의 개인전 '하루 하루 또 하루'가 2012년 11월 5일~ 16일까지 이대 ECC 내 조호윤 갤러리에서 개최되어 호평을 받았다.

주문화(약학 83)

2012년 대한민국 수채화대전에서 주동창의 작품 同形異色(동형이색)이 특선을 수상하였으며 서울시의회 의장상인 특별상도 함께 수여받았다.

박미자(성악 86)

성악과 교수인 박동창은 2012년 11월 17일 토요일 김영의홀에서 성황리에 독창회를 가졌다.

이정애(경제 86)

LG 그룹 최초의 공채 출신으로 여성 사업부장(상무급)을 맡았던 이정애 동창이 2012년 연말 정기인사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LG생활건강의 첫 여성전무 탄생이다.

박은혜(작곡 87)

이대 작곡과 교수인 박동창이 2012년 11월 28일 세종체임버홀에서 작곡 발표회를 가졌다.

김선미(조소 88)

2012년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김정원(영문 91)

10월 1일 한국씨티은행 재무기획그룹 본부장이었던 김동창이 재무기획그룹 부행장(CFO) 및 한국씨티지주 부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문경원(서양 93)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한 '올해의 작가상'을 2012년 11월 문동창이 수상하였다.

문동창은 예술의 본질과 예술가의 역할 등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한 내용을 '뉴스 프롬 노웨어'라는 주제 아래 신문, 서적, 영상 작품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선보이고 있다.

배양진(생명 94)

휴스턴의 베일리 의과대학 연구원인 배동창이 2012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미국골대사학회(ASBMR) 정기학술대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

이지향(조소 98)

구립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남준(의학 96)

서울대학교 외과의인 이동창이 국내 의료진과 함께 뼈가 잘 부러지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골형성부전증과 간이 점점 굳어지는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생후 8개월된 남아에게 2012년 8월 20일 대수술 끝에 간 이식에 성공했다.

서울대병원은 "골형성부전증 환자에게 간 이식을 한 건 세계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순임(조소 02)

개인전을 2012년 11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소미드로잉센터에서 가졌다.

최은주(한국음악 04)

2012년 10월 9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제 8회 '최은주 해금독주회'를 가졌다. 이번 음악회는 독주회 최초로 협연 형태로 관현악과 어우러진 뜻 깊은 음

악회였다. 최동창은 작년 모교에서 음악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이대, 단국대, 추계예술대,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에 출강하고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이며 한국국악교육학회 이사이다.

정인수(동양 71), 이정주(서양 72), 황혜선(서양 73), 김경인(동양 74), 배경숙(서양 75), 이선주(서양 80), 문근영(생미 85), 전지은(장미 86),

최진희(생미 93), 이소명(회화판화 04)

2012년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광주, 전남 동문회전으로 '우리지금 어디에 있는가...' 전시회가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황효석(조소74) 최윤희(조소77) 정영숙(조소79)

정혜영(조소79) 김영란(조소80)

조소과 선후배 동창 5명이 함께 2012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파란네모 갤러리에서 제 9회 'Group E-形' 정기전을 가졌다.

고원경(조소 77), 나진숙(조소 84), 정영자(수안)(조소 84), 조미연(조소 84), 호해란(조소 88), 김선영(조소 89), 김정연(조소 89), 지명순(조소 87), 조은희(조소 94), 강선구(조소 99), 이민영(조소 02)

1977년부터 2002년 졸업까지 조소과 선후배 동창 11명이 함께하는 조각그룹 너와 기획초대전인 '너와, 어린왕자를 만나다'를 2012년 9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전아트센터에서 가졌다.

제 128호 이화동창에 게재된 시 '산수유나무' 작가 이선영 동창은 국문과 87년 졸업생입니다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2012 1 2012 12

| | | | | | |
|-----|--------------------|-----|--------------------|-----|--------------------|
| 이희호 | (문과 44) 1,000,000 | 유동원 | (의학 84) 1,000,000 | 윤혜원 | (피아노 82) 2,000,000 |
| 김진선 | (영문 78) 1,000,000 | 이승희 | (의학 84) 1,000,000 | 장현정 | (관현 82) 2,000,000 |
| 배혜경 | (영문 79) 1,000,000 | 김은성 | (의학 86) 1,000,000 | 하인정 | (성악 82) 2,000,000 |
| 황명순 | (정외 75) 1,000,000 | 신효경 | (의학 90) 1,000,000 | 서주미 | (한음 82) 2,000,000 |
| 유영선 | (신방 75) 1,000,000 | 김계숙 | (간호 70) 1,000,000 | 차명임 | (서양 82) 2,000,000 |
| 백수경 | (신방 79) 1,000,000 | 김진향 | (간호 73) 1,000,000 | 안혜영 | (조소 82) 2,000,000 |
| 지연숙 | (사회 82) 1,000,000 | 정경숙 | (간호 75) 1,000,000 | 김운희 | (섬예 82) 2,000,000 |
| 홍임선 | (생명 60) 1,000,000 | 김혜영 | (간호 76) 1,000,000 | 이혜경 | (생미 82) 2,000,000 |
| 박상희 | (컴퓨터 85) 1,000,000 | 분 희 | (약학 59) 1,000,000 | 정경선 | (장미 82) 2,000,000 |
| 박정례 | (섬예 79) 1,000,000 | 위성숙 | (약학 73) 2,000,000 | 서동주 | (도예 82) 2,000,000 |
| 노 용 | (생미 72) 1,000,000 | 김선녀 | (소인 88) 2,000,000 | 최정진 | (체육 82) 2,000,000 |
| 박유나 | (도예 81) 1,000,000 | 김유겸 | (의직 70) 1,000,000 | 오승희 | (무용 82) 2,000,000 |
| 이영란 | (체육 76) 2,000,000 | 박경임 | (식영 73) 1,000,000 | 이계영 | (교육 82) 2,000,000 |
| 박경실 | (체육 78) 2,000,000 | 최수주 | (식영 75) 1,000,000 | 현은자 | (유교 82) 2,000,000 |
| 손성혜 | (교육 64) 1,000,000 | 정조인 | (식영 83) 2,000,000 | 허미화 | (초교 82) 2,000,000 |
| 조경원 | (교육 75) 1,000,000 | 양수화 | (교대원 74) 1,000,000 | 김형미 | (교공 82) 2,000,000 |
| 박정현 | (교육 95) 2,000,000 | 최영은 | (정책대 08) 1,000,000 | 명경미 | (특교 82) 2,000,000 |
| 조을순 | (초교 75) 1,000,000 | 방혜성 | (영문 82) 2,000,000 | 유지형 | (영교 82) 2,000,000 |
| 권미경 | (교공 87) 1,000,000 | 어미화 | (불문 82) 2,000,000 | 전화순 | (불교 82) 2,000,000 |
| 고승덕 | (보교 78) 1,000,000 | 강현옥 | (독문 82) 2,000,000 | 박종서 | (과교 82) 2,000,000 |
| 김애주 | (의학 51) 1,000,000 | 유승희 | (기독 82) 2,000,000 | 조은숙 | (수교 82) 2,000,000 |
| 오양자 | (의학 65) 1,000,000 | 노양희 | (정외 82) 2,000,000 | 김종민 | (보교 82) 2,000,000 |
| 정화순 | (의학 74) 1,000,000 | 김시연 | (사회 82) 2,000,000 | 홍성년 | (법학 82) 2,000,000 |
| 조종남 | (의학 75) 1,000,000 | 이경선 | (신방 82) 2,000,000 | 한영신 | (경영 82) 2,000,000 |
| 김현영 | (의학 78) 1,000,000 | 김선영 | (사회 82) 2,000,000 | 임선영 | (의학 82) 2,000,000 |
| 오혜숙 | (의학 78) 1,000,000 | 박혜영 | (사복 82) 2,000,000 | 박혜숙 | (간호 82) 2,000,000 |
| 이종민 | (의학 80) 1,000,000 | 한성엽 | (심리 82) 2,000,000 | 김영주 | (약학 82) 2,000,000 |
| 김효신 | (의학 84) 1,000,000 | 최영주 | (수학 82) 2,000,000 | 양현옥 | (계약 82) 2,000,000 |
| 안혜선 | (의학 84) 1,000,000 | 성은경 | (화학 82) 2,000,000 | 한경주 | (식영 82) 2,000,000 |

2013년도 '이화인 연회비 납부'에 참여해 주십시오

동창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장학사업과 회보 제작 및 우송료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연회비(삼만원)는 지로용지 대신 아래 계좌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12년 총동창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보내주신 동창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창들께서 보내주신 연회비는 장학사업과 회보 제작 및 우송료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납부자 명단 문의는 총동창회 사무실(02-3277-338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문과학대학 | | | | | | | |
|------------|---------------|------------|------------|---------------|--|--|--|
| 문과 | | | | | | | |
| 이희호 (1944) | 이혜영 (1999) | 김영경 (1950) | 이유경 (1968) | 박민서 (1992) | | | |
| 김미화 () | 오현정 (2000) | 류수인 (1950) | 이인숙 (1968) | 이승은 (1994) | | | |
| 국어국문학과 | 김윤희 (2002) | 불 명 (1950) | 정성희 (1969) | 권정아 (1996) | | | |
| 전상애 (1956) | 이지원 (2005) | 이정선 (1954) | 김순희 (1970) | 박은영 (1997) | | | |
| 서정자 (1957) | 이유빈 (2009) | 김순자 (1955) | 성혜옥 (1970) | 최수진 (1999) | | | |
| 김영학 (1958) | 이은지 (2009) | 김순자 (1955) | 송봉자 (1970) | 윤숙종 (2002) | | | |
| 임인진 (1958) | 이향아 (2009) | 김승숙 (1955) | 고경원 (1971) | 송의숙 (2005) | | | |
| 한정숙 (1959) | 윤경원 (2010) | 백형진 (1955) | 김수연 (1971) | 합화정 (2005) | | | |
| 신도자 (1960) | 홍주은 (2010) | 손경임 (1955) | 이승신 (1972) | 김희경 (2008) | | | |
| 양중자 (1960) | 정연주 (2011) | 최일연 (1955) | 백봉옥 (1974) | 서은주 (2008) | | | |
| 이규희 (1960) | 백지연 (2012) | 김형식 (1956) | 이경아 (1974) | 이승은 (2008) | | | |
| 남을우 (1961) | 이윤수 | 박용언 (1956) | 이명숙 (1974) | 김시내 (2009) | | | |
| 윤숙자 (1963) | 중어중문학과 | | | | | | |
| 이정숙 (1963) | 김진경 (1992) | 함선영 (1956) | 백혜련 (1975) | 박서영 (2009) | | | |
| 박미해 (1964) | 전혜령 (1994) | 김춘삼 (1957) | 신영순 (1975) | 이지은 (2009) | | | |
| 유해일 (1964) | 이수연 (1995) | 이혜숙 (1957) | 강인숙 (1976) | 김윤아 (2010) | | | |
| 안정환 (1965) | 김은주 (1999) | 최종업 (1957) | 김미화 (1976) | 문경은 (2010) | | | |
| 유정자 (1965) | 장혜진 (1999) | 이경희 (1958) | 추미경 (1976) | 양보나 (2010) | | | |
| 이수자 (1965) | 강보경 (2003) | 장명옥 (1960) | 김홍숙 (1977) | 이주은 (2010) | | | |
| 신효재 (1966) | 김혜진 (2003) | 최영희 (1960) | 신미경 (1977) | 이현영 (2010) | | | |
| 정준선 (1966) | 문여정 (2003) | 공경원 (1961) | 이정숙 (1977) | 정서연 (2010) | | | |
| 최정숙 (1966) | 박종립 (2003) | 김옥선 (1961) | 박진숙 (1978) | 김소영 (2011) | | | |
| 불 명 (1967) | 방가희 (2003) | 박자옥 (1961) | 윤정근 (1978) | 박예진 (2011) | | | |
| 이혜자 (1967) | 김희망 (2005) | 박병희 (1961) | 허정자 (1978) | 곽정미 (2012) | | | |
| 신연임 (1969) | 박선영 (2006) | 이 (1961) | 이해남 (1979) | 정현교 (2012) | | | |
| 유원화 (1969) | 금효빈 (2007) | 구훈모 (1962) | 정운계 (1979) | 박명순 | | | |
| 이명숙 (1969) | 김미희 (2007) | 김영순 (1962) | 김 (1980) | 박인자 | | | |
| 이혜옥 (1969) | 김하나 (2007) | 윤정자 (1962) | 김영실 (1980) | 백용희 | | | |
| 정혜숙 (1973) | 박혜화 (2007) | 이기영 (1962) | 김종유 (1980) | 이승희 | | | |
| 조운희 (1973) | 백지현 (2007) | 이정희 (1962) | 박동숙 (1980) | 이영복(A) | | | |
| 최취수 (1973) | 안상신 (2007) | 이행자 (1962) | 김선희 (1981) | 정연재 | | | |
| 이천애 (1975) | 나혜진 (2008) | 김정매 (1963) | 방혜성 (1982) | 불어불문학과 | | | |
| 전신애 (1975) | 이한나 (2008) | 박봉숙 (1963) | 양선주 (1982) | 허영자 (1962) | | | |
| 한순미 (1975) | 이현주 (2008) | 양정자 (1963) | 이경숙 (1982) | 윤용범 (1964) | | | |
| 백영자 (1976) | 임정희 (2008) | 엄윤성 (1963) | 이순주 (1982) | 조귀연 (1965) | | | |
| 박인숙 (1979) | 서유나 (2010) | 이명환 (1964) | 이영진 (1982) | 김영희 (1966) | | | |
| 우은미 (1983) | 고은별 (2012) | 안혜초 (1965) | 이향미 (1982) | 이은혜 (1966) | | | |
| 여지은 (1994) | 이지희 (2012) | 윤정혜 (1965) | 임순희 (1982) | 엄선경 (1967) | | | |
| 조우경 (1996) | 정문경 (2012) | 정혜주 (1965) | 김화경 (1983) | 이경혜 (1967) | | | |
| | 임정희 (1949) | 최계자 (1965) | 박경애 (1983) | 이한순 (1967) | | | |
| | 최윤애 (1949) | 최은주 (1965) | 전기옥 (1984) | 박종희 (1968) | | | |
| | | 김교숙 (1968) | 이승은 (1985) | 이원옥 (1968) | | | |
| | | | 김미현 (1986) | 원경숙 (1970) | | | |

| | | | | | | | | | | |
|---------------|--------|--------------|--------|---------------|--------|-------------|--------|---------------|--------|--------|
| 장혜경 | (1973) | 사학과 | 김은희 | (1976) | 이유주 | (2010) | 김한울 | (2010) | | |
| 강숙희 | (1974) | 박기옥 | (1954) | 백은미 | (1989) | 현지은 | (2010) | 이예진 | (2010) | |
| 신덕영 | (1975) | 박경하 | (1960) | 조자영 | (1999) | 강애란 | (2011) | 박정민 | (2011) | |
| 김태경 | (1981) | 손경수 | (1960) | 조정자 | (2004) | 백지윤 | (2012) | 심시영 | (2011) | |
| 불명 | (1981) | 송은자 | (1960) | 박경란 | (2012) | 왕수안 | (2012) | 유지연 | (2011) | |
| 이규숙 | (1981) | 이은숙 | (1960) | 사회과학대학 | | | 전아영 | (2011) | | |
| 어미화 | (1982) | 김인숙 | (1961) | 정치외교학과 | | | 김연희 | (2012) | | |
| 이난희 | (1983) | 김호숙 | (1961) | 이희정 | (1956) | 이혜진 | (2012) | 임다혜 | (2012) | |
| 진미화 | (1990) | 정민자 | (1961) | 오명령 | (1957) | 황신우 | (2012) | 문헌정보학과 | | |
| 김석진 | (1992) | 김학자 | (1962) | 최명숙 | (1957) | 이명숙, 양선희 | | 유소영 | (1965) | |
| 조성아 | (1992) | 남상훈 | (1962) | 조광복 | (1961) | 행정학과 | | 최선희 | (1965) | |
| 이초혜 | (1996) | 노수자 | (1964) | 최금자 | (1966) | 이주희 | (2002) | 홍승진 | (1965) | |
| 이수민 | (1999) | 변성숙 | (1965) | 우행자 | (1969) | 최혜지 | (2002) | 박영숙 | (1968) | |
| 김한주 | (2001) | 임계순 | (1967) | 최영자 | (1969) | 이정화 | (2006) | 이민자 | (1968) | |
| 최연희 | (2002) | 오옥환 | (1968) | 김영희 | (1970) | 유샛별 | (2007) | 이승우 | (1968) | |
| 김희진 | (2007) | 정금례 | (1969) | 백영옥 | (1970) | 박성희 | (2008) | 정인숙 | (1968) | |
| 장현정 | (2008) | 민병서 | (1971) | 서영미 | (1970) | 양희진 | (2008) | 송영숙 | (1970) | |
| 강지은 | (2009) | 정혜자 | (1972) | 서정희 | (1970) | 기은주 | (2009) | 이주식 | (1972) | |
| 양지영 | (2009) | 김영주 | (1973) | 심인주 | (1970) | 조수연 | (2009) | 윤소영 | (1973) | |
| 김유진 | (2012) | 김지영 | (1975) | 이양준 | (1970) | 문은진 | (2010) | 김이경 | (1977) | |
| 김지영 | (2012) | 신향범 | (1975) | 이연표 | (1970) | 배성은 | (2011) | 정정자 | (1987) | |
| 독어독문학과 | | | 이재순 | (1975) | 이혜련 | (1970) | 고유경 | (1995) | | |
| 오영란 | (1967) | 정현주 | (1976) | 조백련 | (1970) | 심미혜 | (2011) | 정혜영 | (2004) | |
| 이중희 | (1967) | 윤혜신 | (1980) | 조복선 | (1970) | 오승주 | (2011) | 이슬비 | (2006) | |
| 최옥주 | (1967) | 김영완 | (1981) | 하정희 | (1970) | 유희원 | (2011) | 박혜정 | (2010) | |
| 이숙경 | (1968) | 김시연 | (1982) | 구혜정 | (1971) | 이선화 | (2011) | 김수민 | (2011) | |
| 조영주 | (1968) | 박영희 | (1984) | 신경희 | (1971) | 신유경 | (2012) | 이주현 | (2011) | |
| 고화련 | (1969) | 이영란 | (1987) | 최종혜 | (1976) | 신혜원 | (2012) | 조상아 | (2012) | |
| 박효순 | (1969) | 양혜빈 | (2010) | 이문숙 | (1979) | 이지현 | (2012) | 사회학과 | | |
| 위재숙 | (1969) | 노수영 | (2011) | 전정희 | (1979) | 여중여 | (1963) | 김덕신 | (1966) | |
| 윤민희 | (1969) | 여민정 | (2012) | 김소영 | (1980) | 장균주 | (1989) | 정행자 | (1966) | |
| 이금숙 | (1969) | 이수연 | (2012) | 황재옥 | (1981) | 김미선 | (1995) | 표경희 | (1966) | |
| 권영희 | (1970) | 박경하 | | 이영미 | (1985) | 김나희 | (2002) | 이안자 | (1967) | |
| 현영은 | (1971) | 이혜옥 | | 김수경 | (1989) | 김영서 | (2003) | 이효원 | (1969) | |
| 이계숙 | (1972) | 철학과 | 이영재 | (1986) | 허다연 | (1992) | 김보경 | (2005) | 민순기 | (1970) |
| 차성은 | (1972) | | 이지애 | (1987) | 김선미 | (1998) | 이진숙 | (2006) | 이현숙 | (1970) |
| 김영호 | (1973) | | 김영희 | (1988) | 정하나 | (1998) | 노연승 | (2007) | 최진선 | (1970) |
| 유동신 | (1974) | | 장우주 | (1989) | 박지은 | (2003) | 이민희 | (2007) | 손귀덕 | (1971) |
| 이정화 | (1974) | | 이소민 | (1996) | 오현진 | (2003) | 이현주 | (2007) | 유명근 | (1972) |
| 정종희 | (1980) | | 김경희 | (2006) | 윤지소 | (2004) | 최미영 | (2007) | 윤명근 | (1972) |
| 강현옥 | (1982) | | 이주연 | (2004) | 이주연 | (2004) | 강민지 | (2008) | 김난숙 | (1974) |
| 우은진 | (1992) | 기독교학과 | 전인순 | (1963) | 변수진 | (2005) | 김나현 | (2008) | 문명재 | (1977) |
| 이화진 | (1996) | | 김조자 | (1965) | 차지원 | (2006) | 김보람 | (2008) | 김은미 | (1981) |
| 주재은 | (1999) | | 신혜정 | (1965) | 김윤정 | (2007) | 유현경 | (2008) | 김혜경 | (1981) |
| 안정선 | (2002) | | 이혜재 | (1966) | 이은별 | (2009) | 이재경 | (2008) | 김선영 | (1982) |
| 배시우 | (2010) | | 장수자 | (1966) | 정주은 | (2009) | 민정은 | (2009) | 이정화 | (1985) |
| 이민지 | (2011) | | 김연숙 | (1969) | 유 미 | (2010) | 양현경 | (2009) | 차숙현 | (1986) |
| 이율리 | (2012) | | 김미순 | (1975) | 이동주 | (2010) | 장윤선 | (2009) | 김은주 | (1989) |
| | | | | | | 강희용 | (2010) | | | |

| | | | | |
|----------------------|---------------|------------|------------|--------------|
| 박혜정 (1997) | 조상옥 (1976) | 노민영 (2012) | 이민정 (2012) | 생명과학과 |
| 최경세 (2007) | 최 (1979) | 차소라, 정영숙 | 조우주 (1961) | 이금석 (1959) |
| 김우진 (2008) | 김영주 (1981) | | 정경숙 (1963) | 류 우 (1960) |
| 박상영 (2008) | 이연우 (1984) | | 김영선 (1968) | 이규희 (1960) |
| 김나래 (2009) | 이동길 (1989) | | 김성희 (1974) | 최순경 (1960) |
| 한가람 (2009) | 이주은 (1991) | | 김홍선 (1981) | 최영희 (1960) |
| 이지은 (2012) | 이현승 (1993) | | 최소영 (1984) | 홍임선 (1960) |
| 김은미 사회복지학과 | 성희용 (2001) | | 신희원 (1992) | 서영숙 (1961) |
| 이숙자 (1957) | 장서희 (2001) | | 우연경 (2003) | 선우정숙 (1961) |
| 김판숙 (1958) | 최선아 (2004) | | 김진수 (2007) | 정은자 (1961) |
| 김현지 (1960) | 김정애 (2006) | | 김희진 (2009) | 한승희 (1961) |
| 오순희 (1960) | 김소현 (2007) | | 정재숙 (2009) | 차영순 (1963) |
| 이정숙 (1961) | 김은아 (2008) | | 박현성 (2011) | 윤영명 (1974) |
| 최태순 (1962) | 이지혜 (2008) | | | 조애현 (1974) |
| 조의숙 (1963) | 김선영 (2009) | | | 김용숙 (1975) |
| 김일숙 (1967) | 김태원 (2012) | | | 박원경 (1956) |
| 최수자 (1967) | 육보람 (2012) | | | 함천경 (1977) |
| 고순자 (1969) | 김 연 | | | 윤정희 (1979) |
| 성영희 (1969) | 신문방송학과 | | | 이정화 (1982) |
| 양정애 (1970) | 노조자 (1965) | | | 이선영 (1987) |
| 한숙자 (1970) | 차경애 (1966) | | | 김효숙 (1994) |
| 김기숙 (1974) | 이경순 (1967) | | | 김한나 (2007) |
| 정도경 (1981) | 이정민 (1967) | | | 장선미 (2007) |
| 박혜영 (1982) | 한명미 (1967) | | | 정은선 (2007) |
| 김혜순 (1984) | 김미령 (1969) | | | 김혜보 (2009) |
| 함정인 (1984) | 배영자 (1969) | | | 조가현 (2009) |
| 조상미 (1994) | 문은희 (1972) | | | 유선영 (2010) |
| 성명신 (1995) | 유영선 (1975) | | | 이서영 (2010) |
| 심 (1996) | 주연아 (1976) | | | 이지향 (2010) |
| 심민지 (1996) | 홍인화 (1980) | | | 임계윤 (2010) |
| 신은영 (1997) | 등은해 (1982) | | | 정다해 (2010) |
| 이영미 (2002) | 최정은 (1989) | | | 김수진 (2011) |
| 고재현 (2003) | 주보경 (1990) | | | 유혜란 (2011) |
| 김혜옥 (2007) | 김연정 (2004) | | | 윤혜림 (2011) |
| 김소영 (28회) | 최미리 (2005) | | | 한송이 (2011) |
| 송윤조 심리학과 | 노은미 (2007) | | | 김윤석 (2012) |
| 함혜자 (1957) | 한소연 (2007) | | | 박여진 (2012) |
| 박경숙 (1959) | 한지원 (2007) | | | 유미란 (2012) |
| 백남희 (1959) | 김신혜 (2009) | | | 이미경 (2012) |
| 오봉림 (1961) | 나고운 (2009) | | | 이유정 (2012) |
| 박계숙 (1962) | 이윤교 (2009) | | | 최지현 (2012) |
| 유남숙 (1962) | 류 리 (2010) | | | 탁민경 (2012) |
| 이예순 (1962) | 신현지 (2010) | | | 황인혜 (2012) |
| 차정자 (1965) | 이경진 (2010) | | | 이지향 (201) |
| 김문자 (1967) | 이연재 (2010) | | | |
| 최종옥 (1968) | 최단비 (2010) | | | |
| 홍기명 (1968) | 김남희 (2011) | | | |
| | 신여진 (2011) | | | |
| | 이혜인 (2011) | | | |
| | | | | 공과대학 |
| | | | | 컴퓨터학과 |
| | | | | 조혜영 (1985) |
| | | | | 강성실 (1986) |
| | | | | 이주희 (1987) |

| | | | | | | | | | | | |
|---------------|--------|-------------|------|--------|------------|---------------|--------|-----|--------|--------------|--------|
| 김지영 | (1999) | 음악과 | 윤연경 | (1949) | 작곡과 | 김숙자 | (1967) | 전지원 | (1979) | 채효영 | (1976) |
| 조은영 | (2002) | | 계순영 | (1956) | | 마혜진 | (1973) | 함기옥 | (1979) | 채효영 | (1980) |
| 유지민 | (2008) | | 이현수 | (1956) | | 진영미 | (1974) | 김선주 | (1989) | 정경선 | (1982) |
| 장지윤 | (2008) | | 심재명 | (1957) | | 김시애 | (1975) | 김희진 | (1992) | 정숙영 | (1982) |
| 오지수 | (2009) | | 주영희 | (1957) | | 이주희 | (1975) | 노은지 | (2007) | 도예과 | |
| 이지민 | (2010) | | 구경자 | (1959) | | 차희경 | (1985) | 유수란 | (2012) | 문혜심 | (1980) |
| 서유진 | (2012) | | 이순자 | (1959) | | 오희승 | (1997) | 김소형 | | 박유나 | (1981) |
| 한주연 | (2012) | | | | | 이어진 | (2002) | | | 임희정 | (1985) |
| 정보통신학과 | | | 박은지 | (2010) | | 정혜경 | (2005) | | | 남연숙 | (1986) |
| 이소희 | (2006) | | 정인실 | (2011) | | 이의선 | (2009) | | | 엄승희 | (1988) |
| 원희송 | (2007) | | 고은선 | | | 장예리 | (2010) | | | 이설아 | (2006) |
| 이윤혜 | (2007) | | | | | 종교음악과 | | | | 황영미 | (2007) |
| 이지선 | (2009) | | 이혜정 | (1984) | | 김명수 | (1975) | | | 정수민 | (2010) |
| 김세정 | (2011) | | 계명선 | (1985) | | 최은희 | (1981) | | | 박아영 | (2012) |
| 건축학과 | | | 우숙영 | (1987) | | 한기영 | (1981) | | | 이유정 | (2012) |
| 선영 | (2002) | | 이혜영B | (1987) | | 방명주 | (1993) | | | 박미나 | (2009) |
| 이재연 | (2004) | | 이귀란 | (1990) | | 송은경 | | | | 신정인 | (2009) |
| 채홍미 | (2004) | | 임연실 | (1998) | | 한국음악과 | | | | 최승연 | (2009) |
| 이혜원 | (2005) | | 안용경 | (2002) | | 곽은아 | (1985) | | | 환경디자인 | |
| 홍경진 | (2005) | | 최은영 | (2003) | | 안소연 | (1988) | | | 김소진 | (2006) |
| 유미영 | (2007) | | 권혜인 | (2007) | | 이정선 | (1994) | | | 강한송 | (2008) |
| 윤혜리 | (2009) | | 이혜정 | | | 권혜경 | (2009) | | | 김초룡 | (2008) |
| 김진희 | | 관현악과 | | | | 마수경 | (2010) | | | 김은지 | (2009) |
| 홍경진 | | | 김기순 | (1966) | | 김혜인 | (2011) | | | 박세진 | (2010) |
| 김민선 | (1997) | | 안진희 | (1976) | | 조형예술대학 | | | | 패션디자인 | |
| 임승윤 | (2006) | | 장현정 | (1982) | | 동양화과 | | | | 최예리 | (2010) |
| 하빛나 | (2008) | | 배종선 | (1990) | | 민은기 | (1969) | | | 함가영 | (2012) |
| 박혜림 | (2010) | | 백수영 | (1993) | | 이신호 | (1972) | | | 영상디자인 | |
| 최현진 | (2011) | | 나은주 | (1995) | | 문 예 | (1975) | | | 윤민경 | (2012) |
| 지승희 | (2012) | | 윤문정 | (1996) | | 선진훈 | (1976) | | | 회화판화 | |
| 불 명 | (93학번) | | 문정아 | (2001) | | 이미연 | (1976) | | | 남신해 | (2006) |
| 식품공학과 | | | 김성희 | (2005) | | 박인숙 | (1978) | | | 이큰아름 | (2006) |
| 서자은 | (2012) | | 허기선 | (2008) | | 권은희 | (1980) | | | 손지은 | (2007) |
| 장지은 | (2012) | | 전진희 | (2012) | | 김은희 | (1987) | | | 민유미 | (2009) |
| 음악대학 | | | 구윤경 | | | 김남희 | (1991) | | | 이채연 | (1970) |
| 기악과 | | | 손소정 | | | 유 란 | (2011) | | | 체육대학 | |
| 문병주 | (1939) | 성악과 | 이풍자 | (1963) | | 황유선 | (2011) | | | 체육학과 | |
| 이순자 | (1959) | | 이혜자 | (1965) | | 임수연 | (2012) | | | 조성환 | (1949) |
| 이순영 | (1961) | | 오혜명 | (1968) | | 주은미 | (2012) | | | 방봉세 | (1951) |
| 임금자 | (1961) | | 송연숙 | (1971) | | 서양화과 | | | | 김정자 | (1956) |
| 최승현 | (1963) | | 원성희 | (1971) | | 이경순 | (1950) | | | 유인희 | (1956) |
| 김기순 | (1966) | | 천인숙 | (1982) | | 최구자 | (1965) | | | 김혜자 | (1966) |
| 방명혜 | (1967) | | 하인정 | (1982) | | 강승애 | (1972) | | | 고선헤 | (1967) |
| 최영진 | (1968) | | 김은주 | (1983) | | 황혜선 | (1973) | | | 이정자 | (1968) |
| 나효선 | (1970) | | 석혜원 | (1994) | | 이신혜 | (1974) | | | 서희경 | (1969) |
| 김희진 | (2006) | | 박주은 | (2001) | | 김효정 | (1977) | | | 문규순 | (1970) |
| 김영은 | (2010) | | 류 미 | (2007) | | 김희산 | (1979) | | | 윤남숙 | (1972) |
| 정보람 | (2011) | | | | | | | | | | |

| | | | | | | | | | |
|-------------|--------|--------------|--------|--------------|--------|---------------|--------|--------------|--------|
| 이미나 | (1981) | 주성민 | (1969) | 이화자 | (1979) | 김소연 | (2009) | 장혜온 | (1963) |
| 송정은 | (2010) | 유승희 | (1970) | 안미현 | (2005) | 공서영 | (2010) | 조청자 | (1963) |
| 김나영 | (2012) | 김여옥 | (1974) | 이지윤 | (2007) | 문미혜 | (2010) | 박옥연 | (1965) |
| 무용과 | | 문경숙 | (1974) | 박지윤 | (2008) | 김지은 | (2011) | 양인숙 | (1966) |
| 김정수 | (1970) | 채문숙 | (1974) | 안지영 | (2008) | 문보람 | (2011) | 송경자 | (1968) |
| 조수형 | (1970) | 곽삼근 | (1975) | 이지원 | (2008) | 문희순 | (2012) | 김숙자 | (1970) |
| 조경림 | (2006) | 임현숙 | (1975) | 성유경 | (2009) | 백경리 | (2012) | 민태희 | (1970) |
| 박진덕 | (2007) | 조경원 | (1975) | 김해든 | (2010) | 블명 | (2012) | 박영주 | (1970) |
| 이진민 | (2009) | 정미경 | (1979) | 전윤경 | (2010) | 여나영 | (2012) | 노현숙 | (1971) |
| 최현아 | (2009) | 박영숙 | (1981) | 강윤경 | (2012) | 우리정 | (2012) | 박지선 | (1974) |
| 정재연 | (2010) | 이계영 | (1982) | 김은기 | (2012) | 이지원 | (2012) | 최숙경 | (1978) |
| 임혜린 | (2011) | 김권주 | (1990) | 문영은 | (2012) | 영어교육과 | | 부은령 | (1981) |
| 사범대학 | | 최윤진 | (1993) | 이율희 | (2012) | 계기원 | (1969) | 서혜련 | (1981) |
| 교육학과 | | 박정현 | (1995) | 이창수 | (2012) | 김영숙 | (1969) | 강영옥 | (1985) |
| 백인숙 | (1950) | 황세정 | (1997) | 황연이 | (2012) | 박혜란 | (1969) | 손희정 | (1988) |
| 정일례 | (1950) | 정주희 | (2000) | 교육공학과 | | 지덕옥 | (1975) | 윤성아 | (1995) |
| 박두하 | (1954) | 김영희 | (2004) | 도영숙 | (1968) | 강혜숙 | (1980) | 김원진 | (1997) |
| 사지숙 | (1955) | 박소영 | (2006) | 이혜경 | (1973) | 강은경 | (1981) | 정은정 | (1997) |
| 김금순 | (1956) | 강효정 | (2008) | 노정숙 | (1974) | 양윤희 | (1986) | 박은혜 | (2001) |
| 김애자 | (1956) | 박효은 | (2009) | 하진경 | (1975) | 이상연 | (1987) | 박윤정 | (2002) |
| 조병주 | (1956) | 현지숙 | (2009) | 김하람 | (2012) | 이현정 | (1994) | 이상은 | (2002) |
| 최영숙 | (1956) | 신다혜 | (2012) | 손영신 | (1977) | 이현정B | (1994) | 노은언 | (2005) |
| 임영숙 | (1957) | 호재숙 | | 박지영 | (2011) | 강정아 | (1995) | 김계리 | (2006) |
| 정승례 | (1957) | 유아교육과 | | 김누리 | (2012) | 김희영 | (1997) | 불명 | (2006) |
| 권유봉 | (1958) | 정명자 | (1968) | 하경옥 | (1977) | 조진아 | (1997) | 서현선 | (2007) |
| 장갑순 | (1958) | 우영숙 | (1969) | 김인숙 | (1980) | 정의정 | (2005) | 윤홍경 | (2007) |
| 정재숙 | (1958) | 김영주 | (1971) | 백주연 | (1980) | 황정화 | (2005) | 김지영 | (2008) |
| 권봉선 | (1959) | 조한수 | (1971) | 김행미 | (1982) | 하남이 | (2006) | 염선정 | (2008) |
| 김성숙 | (1959) | 김영재 | (1974) | 박효숙 | (1984) | 김서연 | (2007) | 이지연 | (2008) |
| 김은산 | (1959) | 현은자 | (1982) | 이규리 | (1985) | 강완영 | (2008) | 김태은 | (2009) |
| 김춘심 | (1959) | 안영주 | (1988) | 박은아 | (1986) | 김주연 | (2008) | 지경혜 | (2009) |
| 심재완 | (1959) | 장문정 | (1994) | 최명희 | (1986) | 김설경 | (2009) | 양수정 | (2010) |
| 양영자 | (1959) | 배유영 | (1995) | 최순이 | (1993) | 황윤진 | (2009) | 임소희 | (2011) |
| 김문자 | (1960) | 손수연 | (2000) | 박현우 | (2010) | 황윤진 | (2009) | 김보아 | (2012) |
| 이수진 | (1960) | 최예랑 | (2000) | 한정이 | (2010) | 경예나 | (2011) | 김지은 | (2012) |
| 유수현 | (1961) | 주진선 | (2001) | 박지영 | (2011) | 구성은 | (2011) | 이연희 | |
| 장경희 | (1961) | 홍서진 | (2002) | 안지연 | (2012) | 노승연 | (2011) | 황인수 | |
| 박영희 | (1962) | 김호영 | (2007) | 특수교육과 | | 김동은 | (2012) | 과학교육과 | |
| 백영자 | (1963) | 김효미 | (2007) | 한기정 | (1975) | 김이나 | (2012) | 송옥자 | (1966) |
| 이정옥 | (1963) | 박혜영 | (2009) | 한은주 | (1979) | 김진영 | (2012) | 이순자 | (1967) |
| 심기종 | (1965) | 김윤혜 | (2010) | 김태연 | (1981) | 유미현 | (2012) | 한옥희 | (1967) |
| 윤순희 | (1965) | 이정민 | (2011) | 윤현숙 | (1987) | 외국어교육과 | | 한태화 | (1968) |
| 고명희 | (1968) | 초등교육과 | | 임영자 | (1990) | 김경숙 | (1969) | 최영인 | (1971) |
| 박정수 | (1968) | 고정자 | (1964) | 강경숙 | (1991) | 이혜완 | (1969) | 정재용 | (1974) |
| 박혜숙 | (1968) | 이행자 | (1965) | 이현정 | (1992) | 임화영 | (1982) | 이영희 | (1975) |
| 이재옥 | (1968) | 정경자 | (1971) | 조수진 | (1996) | 김 | | 황인경 | (1986) |
| 장예순 | (1968) | 조현순 | (1972) | 이나경 | (2005) | 사회생활학과 | | 박경희 | (1988) |
| 전희정 | (1968) | 조진영 | (1977) | 노영예 | (2006) | 최용혁 | (1960) | 박인숙 | (1988) |
| | | | | 박민경 | (2006) | 조연수 | (1961) | 조미옥 | (1990) |

| | | | | | | | | | |
|--------------|--------|--------------|--------|-----|--------|-------------|--------|---------------|--------|
| 함혜원 | (1993) | 주민경 | (2012) | 정영심 | (2000) | 이지선 | (2010) | 김효정 | (2001) |
| 박균하 | (1994) | 차주영 | (2012) | 조윤지 | (2000) | 조장은 | (2010) | 박정선 | (2004) |
| 김서영 | (1996) | 홍수연 | (2012) | 한은주 | (2000) | 최명주 | (2010) | 김현정 | (2005) |
| 김수정 | (1996) | 보건교육과 | | 남윤경 | (2001) | 홍수정 | (2011) | 박성민 | (2006) |
| 박소연 | (1998) | 박영자 | (1969) | 노미현 | (2001) | 김가영 | (2011) | 노계연 | (2007) |
| 김종환 | (2004) | 이성자 | (1969) | 신승희 | (2001) | 김주미 | (2011) | 민지숙 | (2007) |
| 이윤영 | (2004) | 조수열 | (1971) | 조은아 | (2001) | 문서영 | (2011) | 왕지영 | (2007) |
| 홍혜영 | (2005) | 최명숙 | (1971) | 김지선 | (2002) | 신예경 | (2011) | 장유진 | (2007) |
| 조달희 | (2006) | 이주순 | (1973) | 신정훈 | (2002) | 이서윤 | (2011) | 한현주 | (2007) |
| 심현주 | (2007) | 이각형 | (1974) | 김은진 | (2003) | 이해민 | (2011) | 원경선 | (2008) |
| 박혜주 | (2008) | 박인순 | (1977) | 김영주 | (2003) | 이현아 | (2011) | 이수지 | (2008) |
| 조희경 | (2008) | 고승덕 | (1978) | 권혜은 | (2003) | 임슬기 | (2011) | 고현지 | (2009) |
| 강유경 | (2009) | 임찬희 | (1978) | 강소현 | (2004) | 전보영 | (2011) | 서보나 | (2009) |
| 박현주 | (2009) | 김종민 | (1982) | 김유나 | (2004) | 최승희 | (2011) | 최소라 | (2009) |
| 최유란 | (2009) | 김유리 | (2010) | 박희진 | (2004) | 최유경 | (2012) | 김근영 | (2010) |
| 신지현 | (2010) | 박슬미 | (2012) | 유여진 | (2005) | 김민정 | (2012) | 나은별 | (2010) |
| 김혜원 | (2011) | 국어교육과 | | 이혜영 | (2005) | 김소형 | (2012) | 박은영 | (2010) |
| 황희정 | (2011) | 민지선 | (2010) | 정진아 | (2005) | 김송현 | (2012) | 안승희 | (2010) |
| 고경란 | (2012) | 합지희 | (2010) | 정유진 | (2006) | 김양지 | (2012) | 이은정 | (2010) |
| 김나연 | (2012) | 백소영 | (2011) | 송은지 | (2006) | 김지은 | (2012) | 곽주은 | (2012) |
| 김나영 | (2012) | 임혜린 | (2011) | 고미라 | (2006) | 박한나 | (2012) | 류정현 | (2012) |
| 김미리 | (2012) | 김민지 | (2012) | 박정희 | (2006) | 서세은 | (2012) | 김수진 | (2012) |
| 김미림 | (2012) | 법과대학 | | 이정미 | (2006) | 유지혜 | (2012) | 박진아 | (2012) |
| 김효정 | (2012) | 법학과 | | 이주은 | (2006) | 이수진 | (2012) | 송수현 | (2012) |
| 노 을 | (2012) | 법학과 | | 류현재 | (2007) | 임지원 | (2012) | 이승화 | (2012) |
| 안영은 | (2012) | 김정순 | (1955) | 강혜숙 | (2007) | 최수희 | (2012) | 조혜연 | (2012) |
| 윤현진 | (2012) | 윤후정 | (1955) | 권혜영 | (2007) | 한승혜 | (2012) | 강은지 | |
| 황경숙 | (2012) | 김정자 | (1956) | 김혜란 | (2007) | 현지연 | (2012) | 이은주 | |
| 김다애 | | 권혁희 | (1958) | 허승혜 | (2007) | 현 진 | (2012) | 국제사무학과 | |
| 이영주 | | 윤명열 | (1960) | 강수연 | (2008) | 경영대학 | | 임은식 | (1981) |
| 수학교육과 | | 유희숙 | (1965) | 김근영 | (2008) | 경영학과 | | 한영아 | (1994) |
| 문봉선 | (1976) | 정정하 | (1965) | 박보광 | (2008) | 김효순 | (1969) | 이진아 | (2001) |
| 양유경 | (1978) | 차명희 | (1966) | 이애성 | (2008) | 김옥순 | (1969) | 장수진 | (2005) |
| 류무희 | (1981) | 안정희 | (1967) | 이재현 | (2008) | 전예은 | (2009) | 전예은 | (2009) |
| 서혜정 | (1996) | 박현순 | (1969) | 노숙영 | (2009) | 임혜옥 | (1974) | 김보배 | (2010) |
| 김종호 | (2001) | 구정숙 | (1970) | 진승연 | (2009) | 정증자 | (1974) | 김애진 | (2010) |
| 김수현 | (2007) | 하현숙 | (1971) | 안지연 | (2009) | 김진옥 | (1976) | 안성연 | (2011) |
| 정빛나 | (2007) | 천명옥 | (1972) | 유영아 | (2009) | 김영선 | (1978) | 주선희 | (2011) |
| 이지예 | (2008) | 박관순 | (1972) | 장혜원 | (2009) | 나연희 | (1979) | 의과대학 | |
| 박현주 | (2009) | 조근배 | (1977) | 강수정 | (2010) | 손향아 | (1981) | 의학과 | |
| 이지현 | (2010) | 손준영 | (1983) | 손 완 | (2010) | 이봉학 | (1981) | 권분이 | (1950) |
| 정상희 | (2010) | 유숙영 | (1985) | 김태연 | (2010) | 한영신 | (1982) | 김애주 | (1950) |
| 김지현 | (2011) | 공지영 | (1994) | 김희연 | (2010) | 문수정 | (1984) | 박숙정 | (1951) |
| 박서연 | (2011) | 최은영 | (1994) | 박서영 | (2010) | 홍기연 | (1985) | 조성매 | (1953) |
| 박정윤 | (2011) | 김은주 | (1996) | 박윤진 | (2010) | 김수진 | (1991) | 박명숙 | (1953) |
| 양민이 | (2011) | 김태희 | (1996) | 박정민 | (2010) | 구성원 | (1995) | 김순희 | (1959) |
| 한아름 | (2011) | 최태은 | (1996) | 신영지 | (2010) | 김현순 | (1996) | 차순자 | (1960) |
| 허은지 | (2011) | 박현주 | (1999) | 윤지혜 | (2010) | 정지영 | (1996) | 이창학 | (1961) |
| 김현진 | (2012) | 이지연 | (2000) | 이수미 | (2010) | 윤유진 | (2000) | | |

| | | | | | | | | | |
|----------|--------|---------------|--------|--------|--------|--------|--------|---------------|--------|
| 김복순 | (1961) | 간호과학대학 | 홍정옥 | (1957) | 홍강수 | (1963) | 권진현 | (2005) | |
| 권태희 | (1961) | 간호학과 | 이무경 | (1957) | 송후자 | (1964) | 김솔 | (2006) | |
| 이정식 | (1963) | 최옥희 | (1959) | 김원숙 | (1957) | 이정혜 | (1964) | 김혜진 | (2007) |
| 유기숙 | (1975) | 유인숙 | (1959) | 김진숙 | (1958) | 홍경자 | (1964) | 정채은 | (2009) |
| 조종남 | (1975) | 전용조 | (1960) | 유문자 | (1958) | 구신자 | (1964) | 이지영 | (2009) |
| 이영우 | (1964) | 남상옥 | (1962) | 곽순덕 | (1958) | 정태연 | (1964) | 서희원 | (2010) |
| 이현숙 | (1964) | 윤순자 | (1964) | 문예자 | (1958) | 백정자 | (1964) | 진예경 | (2011) |
| 이규현 | (1968) | 이현숙 | (1969) | 민병옥 | (1959) | 김정경 | (1964) | 장혜은 | (2011) |
| 주문희 | (1970) | 김진향 | (1973) | 서용숙 | (1959) | 불명 | (1965) | 구효정 | (2011) |
| 김화숙 | (1971) | 조순옥 | (1974) | 신가균 | (1959) | 송경자 | (1965) | 김정현 | (2011) |
| 김혜진 | (1971) | 권재순 | (1974) | 문희 | (1959) | 문예자 | (1966) | 장수민 | (2011) |
| 이영주 | (1972) | 안혜숙 | (1974) | 이영애 | (1959) | 이기순 | (1966) | 권지희 | (2012) |
| 이영희 | (1973) | 김혜영 | (1979) | 윤혜숙 | (1959) | 김화수 | (1966) | 김지혜 | (2012) |
| 최금자 | (1974) | 김선애 | (1980) | 이주화 | (1960) | 이강희 | (1966) | 김혜민 | (2012) |
| 이경자 | (1975) | 윤지연 | (1985) | 황명순 | (1960) | 박해영 | (1966) | 박준 | (19회) |
| 이덕용 | (1975) | 안기옥 | (1986) | 이종섭 | (1960) | 석귀덕 | (1967) | 김수자 | |
| 유기숙 | (1975) | 강윤희 | (1994) | 강보길 | (1960) | 강원자 | (1967) | 제약학과 | |
| 주수자 | (1975) | 신수진 | (1996) | 김보근 | (1960) | 마영자 | (1967) | 채선자 | (1973) |
| 이은엽 | (1975) | 강숙정 | (2002) | 김용호 | (1960) | 김영숙 | (1967) | 오용순 | (1975) |
| 횡임령 | (1976) | 조아라 | (2006) | 천인숙 | (1960) | 횡혜자 | (1967) | 오용순 | (1975) |
| 장애숙 | (1976) | 유명희 | (2008) | 정휘숙 | (1960) | 강원자 | (1967) | 조진희 | (1975) |
| 장애숙 | (1976) | 김수영 | (2009) | 이도선 | (1960) | 백형혜 | (1968) | 이길자 | (1976) |
| 김정례 | (1977) | 박혜령 | (2011) | 변양자 | (1960) | 조외희 | (1968) | 안혜영 | (1976) |
| 김경한 | (1977) | 윤예림 | (2011) | 한영숙 | (1960) | 박순례 | (1968) | 강옥수 | (1976) |
| 이혜성 | (1977) | 손지희 | | 김형례 | (1960) | 진미숙 | (1968) | 김혜연 | (1980) |
| 이진숙 | (1978) | | | 김은숙 | (1960) | 김초원 | (1968) | 진예정 | (1984) |
| 오혜숙 | (1978) | | | 천인숙 | (1960) | 박성숙 | (1969) | 이주영 | (1987) |
| 이종민 | (1980) | 약학대학 | | 이옥순B | (1960) | 정인숙 | (1969) | 횡경수 | (1988) |
| 현영화 | (1981) | 약학과 | | 고순환 | (1960) | 전경숙 | (1969) | 이은주 | (1995) |
| 백애란 | (1981) | | | 윤정섭 | (1960) | 전병숙 | (1970) | 조서희 | (1995) |
| 임선영 | (1982) | | | 박란서 | (1960) | 박순희 | (1970) | 임은행 | (1996) |
| 곽미영 | (1983) | | | 양창균 | (1960) | 박노신 | (1970) | 서은영 | (1999) |
| 왕영미 | (1983) | | | 음용봉 | (1961) | 신옥희 | (1970) | 양유림 | (2000) |
| 이승희 | (1984) | | | 김옥녀 | (1961) | 박정아 | (1971) | 이소정 | (2006) |
| 김효신 | (1984) | | | 정예경 | (1961) | 고명순 | (1972) | | |
| 최은진 | (1988) | | | 고경희 | (1961) | 임형순 | (1973) | 생활환경대학 | |
| 김문영 | (1988) | | | 윤용봉 | (1961) | | | 가정과 | |
| 유현미 | (1988) | | | 고화영 | (1961) | | | 백명진 | (1944) |
| 김영실 | (1990) | | | 허순영 | (1961) | | | 이혜석 | (1949) |
| 유진아 | (1992) | | | 강애삼 | (1961) | | | 장순구 | (1953) |
| 권계랑 | (1992) | | | 김춘숙 | (1961) | | | 박윤정 | (1955) |
| 조연실 | (2006) | | | 김종옥 | (1961) | | | 이병림 | (1955) |
| 양혜린 | (2007) | | | 김덕희 | (1961) | | | 최옥현 | (1957) |
| 주희진 | (2007) | | | 송미래 | (1962) | | | 이신덕 | (1957) |
| 최차현 | (2010) | | | 정덕명 | (1962) | | | 김옥진 | (1958) |
| 주혜인 | (2011) | 고영수 | (1957) | 김영순 | (1962) | | | 김형복 | (1959) |
| 최혜옥 | | 2013년분 | | 조수남 | (1962) | | | 전은수 | (1960) |
| 최혜영 | | 황동수 | (1957) | 김순영 | (1962) | | | 박준교 | (1961) |
| 최현숙, 조윤숙 | | 이정경 | (1957) | 차영화 | (1963) | | | 장영희 | (1963) |
| | | 전자원 | (1957) | | | | | | |

| | | | | | | | | |
|------------------|--------|---------------|--------|----------------|--------|-------------------|--------|----------|
| 이영예 | (1963) | 지하연 | (2004) | 정현주 | (2012) | 한수희 | (2010) | 김현정 |
| 배옥재 | (1963) | 김정은 | (2006) | 제갈선 | (2012) | 박시은 | (2012) | 김현주 |
| 박영혜 | (1963) | 이나래 | (2010) | 최미정 | (2012) | 이현아 | (2009) | 김형경 |
| 김효영 | (1963) | 부수현 | (2010) | 우영숙 | (1987) | 의학전문대학원 | | 김형경 |
| 김용자 | (1964) | 이동윤 | (2012) | 신영임 | (2007) | 박보현 | (2009) | 김혜정 |
| 윤송자 | (1964) | 이승재 | (2012) | 최윤희 | (2012) | 입상보건대학원 | | 남옥우 |
| 예경혜 | (1964) | 강미경 | () | 노보혜 | (2010) | 이경진 | (2010) | 노경혜 |
| 김길수 | (1964) | 의류직물학과 | | 김 령 | | 실용음악대학원 | | 노경혜 |
| 박정자A | (1965) | 이미자 | (1974) | 김지원 | | 김은경 | (2005) | 류경라 |
| 문숙희 | (1965) | 설영자 | (1975) | 국제대학원 | |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 | 류자민 |
| 조규화 | (1966) | 조형숙 | (1976) | 이상희 | (2003) | 김정은 | (2011) | 박덕순 |
| 이갑희 | (1966) | 우미형 | (1977) | 황희주 | (2011) | 학과, 년도 미상 | | 박보희 |
| 오매성 | (1966) | 이승희 | (1979) | 교육대학원 | | 김세미 | | 박세미 |
| 최민자 | (1967) | 홍중옥 | (1981) | 김복근 | (1986) | 박수경 | | 박수경 |
| 박순자 | (1967) | 유정희 | (1983) | 임마성 | (1987) | 박영주 | | 박영주 |
| 김행자 | (1967) | 김소현 | (1983) | 박희진 | (2007) | 박정애 | | 박정애 |
| 오덕영 | (1968) | 진수정 | (1992) | 한진아 | (2007) | 박종서 | | 박종서 |
| 배계현 | (1968) | 박창희 | (2005) | 김루비 | (2009) | 박희선 | | 박희선 |
| 유춘미 | (1968) | 이수정 | (2006) | 오하나 | (2009) | 배유진 | | 배유진 |
| 김대순 | (1968) | 조인희 | (2008) | 이정인 | (2010) | 배제미 | | 백지숙 |
| 유승희 | (1968) | 이수경 | (2009) | 엄경원 | (2011) | 백지숙 | | 백지숙 |
| 소비자인간발달학과 | | 전은지 | (2012) | 홍기희 | (2012) | 백형자 | | 백형자 |
| 김현숙 | (1973) | | | 박지연 | (2012) | 변정현 | | 변정현 |
| 임정희 | (1979) | 국제학부 | | 신문숙 | (2012) | 이정자 | (1957) | 이정자 |
| 지영서 | (1980) | 국제학과 | | 안정주 | (2012) | 서지영 | | 서지영 |
| 김선녀 | (1988) | 박나영 | (2010) | 최지혜 | (2012) | 설윤경 | | 설윤경 |
| 어수정 | (2011) | 안수연 | (2012) | 강윤정 | (2003) | 순경자 | | 순경자 |
| 김혜경 | (2002) | 손민지 | (2012) | 사회복지대학원 | | 손영애 | | 손영애 |
| 이두령 | (2002) | 이인희 | (2007) | 심 | (1996) | 송선희 | | 송선희 |
| 서진선 | (2004) | 박보미 | (2010) | 선지숙 | (2009) | 송설영 | (2007) | 송설영 |
| 이민정 | (2010) | 엄도영 | (2012) | 김수연 | (2012) | 송승미 | | 송승미 |
| 신진희 | (2012) | 최수안 | (2006) | 경영대학원 | | 송유빈 | | 송유빈 |
| 식품영양학과 | | 강윤영 | (2011) | 우정민 | (2011) | 송정수 | | 송정수 |
| 박일화 | (1949) | 김이 | | 김현정 | (2007) | 송지현 | | 송지현 |
| 박종오 | (1958) | | | 장수경 | (2009) | 신은영 | | 신은영 |
| 제명혜 | (1963) | 대학원 | | 송연주 | (2009) | 심미혜-건? | | 심미혜-건? |
| 구소원 | (1969) | 심희옥 | (1985) | 정보과학대학원 | | 심소연 | | 심소연 |
| 장선재 | (1969) | 김숙현 | (1999) | 김문화 | (2003) | 안미자 | | 안미자 |
| 강명희 | (1969) | 문현실 | (2002) | 정책과학대학원 | | 안마진 | | 안마진 |
| 우정애 | (1970) | 박현옥 | (2002) | 전혜성 | | 안정선 | (2002) | 안정선 |
| 전정숙 | (1971) | 강가람 | (2006) | 신학대학원 | | (2002) | | 안지현 |
| 박경임 | (1973) | 이혜경 | (2008) | 박만자 | (2004) | 안효진 | | 안효진 |
| 최수주 | (1975) | 이유영 | (2010) | 윤은주 | (2008) | 양영민 | (2002) | 양영민 |
| 정은주 | (1977) | 최형금 | (2010) | 디자인대학원 | | 오 (2005) | | 오 (2005) |
| 이혜양 | (1979) | 김정미 | (2011) | 최수현 | (2011) | 오병우 | | 오병우 |
| 한경주 | (1982) | 이새봄 | (2011) | 임주희 | (2012) | 오수경 | | 오수경 |
| 이경희 | (1987) | 이희승 | (2011) | 통번역대학원 | | 오이숙 | | 오이숙 |
| 정은경 | (1990) | 송정아 | (2012) | 한정선 | (2005) | 유명숙 | | 유명숙 |
| 김선자 | (1998) | 권혜인 | (2012) | 불 명 | (2006) | 유승우 | | 유승우 |

| | | | | | | |
|--------------|------------------------|-------------|-----------------------|-----------------|------------|-----------------------|
| 유연희 | 주효진 | 최혜영 | (생미 1986) | 정순교 | (교육 1964) | 이 지 |
| 유의순 | 지수예 | 정홍순 | (성악 1962) | 정명자 | (국 1964) | 이종화 |
| 유지수 | 천영애 | 정선주 | (성악 1968) | 최경인 | (물 1968) | 정미내 |
| 유한선 | 최영희 | 양혜자 | (심리 1974) | 장성희 | (보 1968) | 정지현 |
| 윤여숙 | 최금순 | 조현순 | (영문 1960) | 윤행자 | (생 1964) | 조애도 |
| 윤정아 | 최윤금 | 최경선 | (영문 1961) | 윤은희 | (영 1978) | 한향란 |
| 윤정옥 | 최은실(2002) | 이명아 | (음대 1990) | 브라질 | 1,000,000원 | 싱가폴 1,162,300원 |
| 이계영 | 최중선 | 선재숙 | (의학 1972) | 이탈리아 | 216,411원 | 올랜도 562,512원 |
| 이덕경 | 최현진 | 최길자 | (화학 1965) | 독일오스트리아 | | 신시내티 420,000원 |
| 이미경 | 한수정 | 북가주 | 532,798원 | | 431,775원 | 백미애 (가정 1968) |
| 이민영 | 한영식 | 몬트리올 | 271,764원 | 홍콩 | 665,000 | 김진희 (기악 1968) |
| 이민영 | 한임순 (1959) | 김명원 | (수학 1992) | 함선영 | (영문 1956) | 지민정 (사회 1985) |
| 이선희 | 허은주 | 고정희 | | 방혜자 | (교육 1966) | 황은신 (생미 1970) |
| 이수민 | 홍순경 | 김연숙 | | 이명희 | (무용 1968) | 도미용 (약학 1956) |
| 이선우 | 홍은진 | 박복길 | | 임혜경 | (신방 1979) | 강순명 (약학 1971) |
| 이영서 (1980) | 홍혜경 | 박정자 | | 임미도 | (관현 1981) | 김영채 (영문 1959) |
| 이영숙 | 황서현 | 백희준 | | 최성희 | (정외 1987) | 김혜선 (외교 1969) |
| 이영옥 | 황지선 | 성형숙 | | 허은영 | (중문 1988) | 권숙자 (의학 1967) |
| 이용은 | 기타불명106명 | 이수형 | | 문은명 | (조소 1989) | 변혜경 (조소 1973) |
| 이윤숙 | | 이채화 | | 정경화 | (관현 1990) | 박진혜 (전산 1995) |
| 이윤숙 | | 임명애 | | 한유미 | (보교 1990) | 오레곤 584,257원 |
| 이은경 | 대구 | 전숙자 | | 황정인 | (전산 1990) | 클리브랜드 400,000원 |
| 이자숙 | 순천 | 한현숙 | | 문지영 | (전산 1994) | |
| 이정란 | 김연자 (가정 1959) | 김광주 | | 한정화 | (설예 1994) | |
| 이정숙 | 강초례 (가정 1963) | 오타와 | 341,000원 | 이은희 | (국문 1995) | |
| 이경자 | 홍선란 (교육 1974) | 박우정 | | 송수희 | (신방 1998) | |
| 이정자 | 조정자 (국문 1963) | 박은경 | | 김수지 | (정외 1999) | |
| 이주은 | 김경인 (동양 1974) | 박진희 | | 홍혜연 | (불문 1999) | |
| 이진복 | 박금희 (물리 1977) | 백경자 | | 이선영 | (영 2000) | |
| 이춘희 (1960) | 유종희 (사학 1975) | 엄경자 | | 김영교 | (중 2001) | |
| 이혜숙 | 최영자 (사회 1979) | 오수진 | | 자카르타 | 230,000원 | |
| 이혜숙 | 최정순 (신방 1987) | 이연숙 | | 자카르타 | 100,000원 | |
| 이혜자 | 고명선 (영문 1976) | 임성민 | | 일본 | 420,000원 | |
| 임수연 | 서혜석 (영문 1985) | 장소영 | | 사사끼혜미 (문과 1942) | | |
| 임지영 | 고선영 (외교 불어 1986) | 전영남 | | 김신희 | (의학 1951) | |
| 장고은 | 김명석 (작곡 1979) | 정선덕 | | 강연숙 | (가정 1953) | |
| 장선 | 신경화 (조소 1988) | 정혜경 | | 지혜선 | (약학 1961) | |
| 장애숙 | 황경숙 (체육 1981) | 차정자 | | 김명화 | (음악 1963) | |
| 장영은 | 조영숙 (화학 1967) | 최영아 | | 정정자 | (신방 1965) | |
| 전윤식 | | 한은신 | | 김용원 | (문정 1967) | |
| 전필례 | 제주 500,000원 | 황명희 | | 구덕자 | (의학 1969) | |
| 정명주 | 알래스카 240,000원 | 안현옥 | | 정태영 | (생미 1969) | |
| 정영숙(77학번) | 애틀란타 1,069,595원 | 이은경 | | 정태경 | (사복 1975) | |
| 정영주(1957 8회) | 보스톤 1,069,595원 | 토론토 | 536,320원 | 최순희 | (사학 1978) | |
| | 세인트루이스 | 멜버른 | 289,000원(2012) | 김미혜 | (장미 1982) | |
| 정학용 | | 멜버른 | 149,145원(2013) | 박경희, 손일선 | | |
| 정한숙 | 420,000원 | | | 필리핀 | 320,176원 | |
| 조행란 | 이수자 (가정 1963) | | | 박광옥 | | |
| 조희경 | 한정자 (교육 1963) | | | 성맹희 | | |
| | 황선임 (사대 1959) | | | | | |
| | | | 아르헨티나 210,000원 | | | |

이대 동창회원을 위한 종합건강진단 특별 우대 행사 안내

이대여성건진센터 /건강증진센터에서는 동창 회원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인을 대상으로 종합건강진단 특별 우대 혜택을 드리오니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우대권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 대 혜 택

- 대상**: 이대 동창회원 가족 및 지인
- 혜택내용** : 종합건강진단 및 추가 선택검사 30% 우대
- 우대권 유효기간** : 2013년 12월 31일 (유효기간 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우대권 이용안내** : 1매 2인 사용 가능
(내원시 우대권을 제시하셔야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상담 및 예약** : 02)2650-5117, 5118

절취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종합건강검진특별 우대권

1매 2인 사용가능/
종합 건강 진단 및 추가 선택검사 30% 우대



이대목동병원

EWHA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종합건강검진특별 우대권

1매 2인 사용가능/
종합 건강 진단 및 추가 선택검사 30% 우대



이대목동병원

EWHA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유효기간: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으로 서의 사서직 인식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다음 회의는 2013년 2월 5일 7시 예정이다. 앞으로 ELF는 사서직으로서의 전문성 증진뿐만 아니라 과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이다.

사학과

회장 이혜옥(74)

꾸준히 정기 간사모임 가져

2012년 9월 27일 성복동 푸드카페(구 곤의 집)에서 사학과 정기 간사모임을 가진 후 10월 25일에는 가을 담사로 철원 일대를 답사하였다. 도회안사, 고석정, 전곡 구석기 박물관 등을 돌아보며 깊이기

는 가을을 만끽하는 값진 시간이었다. 즐거웠던 가을 담사를 추적하며 11월 22일에는 석란에서 정기 간사모임을 가졌다.

식품영양학과

회장 이혜양(79)

과 창립 47주년 기념 행사 가져

과 창립 47주년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개최한 '총 동문회의 밤' 행사가 2012년 11월 8일 EOC 이삼봉홀에서 개최되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락미란(85) 동창의 기도로 시작하여 이혜양 회장의 환영사, 김유리(92) 식품영양학과장의 환영사, 최봉순(69) 1기 동창의 축사, 조미숙(63) 전 강과학대학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어서 장학금 수혜 재학생들의 인사, 김숙희 명예교수(전 교육부장관)의 격려사 및 축하공연, 만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식품영양학과 재학생들이 준비한 축하공연은 출입한 선배들의 마음을 훈훈케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영양학과 역대 동창회장, 명

